

제8회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교양교육혁신 학술대회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한국아렌트학회 연합 학술대회

# “현대 사회의 시민성 함양과 교양교육”

발 표 집

2024년 5월 31일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E관) 305호 박도봉세미나룸



**제8회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교양교육혁신 학술대회**  
**: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 한국아렌트학회 연합 학술대회**  
**< 현대 사회의 시민성 함양과 교양교육 >**

2024. 5. 31. (금) 13:00~17:50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E관) 305호, 박도봉세미나룸  
 주최: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 주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 한국아렌트학회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사회
개회	13:00~13:15	<b>개회사 및 축사</b> 개회사: 송석량(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안효성(대구대, 한국아렌트학회장) 축사: 권국진(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장)	김혜림 (목원대)
1부	13:15~13:40	<b>[발표 1]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정치의 관계 : 듀이와 아렌트의 관점”</b> 발표자: 박은주(청주교육대학교)	구진희 (목원대)
	13:40~13:50	발표 1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김세원(목원대)	
	13:50~14:15	<b>[발표 2] “한나 아렌트 ‘사유’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b> 발표자: 서초이(영남대학교)	
	14:15~14:25	발표 2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서정자(조선대학교)	
	14:25~14:50	<b>[발표 3] “나의 교양을 자산으로 : WEB3 시대의 자산화 역량”</b> 발표자: 이상연(LK브라더스)	
	14:50~15:00	발표 3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정옥희(전주교육대학교)	
휴식	15:00~15:10	<b>휴식</b>	
2부	15:10~15:35	<b>[발표 4]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 되기 :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b> 발표자: 김영걸(한국외국어대학교)	구진희 (목원대)
	15:35~15:45	발표 4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안효성(대구대학교)	
	15:45~16:10	<b>[발표 5] “기술산업시대의 생태학 : 생물다양성의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b> 발표자: 방현우(목원대학교)	
	16:10~16:20	발표 5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조용림(목원대학교)	
	16:20~16:45	<b>[발표 6] “잠재력의 재발견 : 세종 이도의 지도자다움은 어떻게 발현되었나?”</b> 발표자: 박현모(세종리더십연구소)	
	16:45~16:55	발표 6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서원혁(충남대학교)	
휴식	16:55~17:05	<b>휴식</b>	
종합토론	17:05~17:35	<b>종합토론</b>	최혜진 (목원대)
교육	17:35~17:45	<b>연구윤리교육</b>	
폐회	17:45~17:50	<b>폐회사</b> 송석량(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 문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 042) 829-8198

# 목 차

-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정치의 관계: 듀이와 아렌트의 관점” ..... 01  
(청주교육대학교, 박은주)
  
- “한나 아렌트 ‘사유’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 21  
(영남대학교, 서초이)
  
- “나의 교양을 자산으로: WEB3 시대의 자산화 역량” ..... 35  
(LK브라더스, 이상연)
  
-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 되기: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 ..... 65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걸)
  
- “기술산업시대의 생태학: 생물다양성의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 81  
(목원대학교, 방현우)
  
- “잠재력의 재발견: 세종 이도의 지도자다움은 어떻게 발현되었나?” ..... 89  
(세종리더십연구소, 박현모)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정치의 관계  
: 듀이와 아렌트의 관점**

청주교육대학교, 박은주



#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정치의 관계 : 듀이와 아렌트의 관점

청주교육대학교, 박은주

## 1. 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인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인간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사회가 개인을 강제하고 억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개인과 사회 간의 모종의 긴장이 존재한다. 인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가 그 인간을 도리어 억압하는 모순이 빚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삶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듀이는 그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극단적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이 이를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먼저 설정해놓고 그 속에서 개인의 형성을 도출하는 관점으로, 플라톤이 대표적이다. 플라톤은 우주(愚衆)들의 투표에 의해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 회의는 정치자체에 회의를 불러왔고, 플라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와 이상적인 인간교육을 담은 『국가』를 집필하게 된다. 말하자면 플라톤의 『국가』는 민주정과 그것을 이루는 데모스(demos)의 교육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치교육론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다수의 대중이 아닌 탁월한 지혜를 가진 한 명의 철학자가 통치하는 정체를 이상사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 그 한명의 탁월한 철인통치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듀이는 이 사고가 매우 혁명적이기는 하지만, (이상사회는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고정된 사회와 고정된 계층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전제적 성격을 띤 비민주적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플라톤의 관점은 개인을 사회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Dewey, 1916/2016: 160)

이와 또다른 극단에 루소의 관점이 있다. 사회에 강조점을 두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개인을 도출하였던 플라톤과 대조적으로, 루소는 사회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개인을 이상적인 상태로 제시한다. 루소는 사회가 개인들의 자연본성과 타고난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그것을 『에밀』 서론의 첫문장 “조물주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으나, 인간의 손길이 닿으면서 모든 것은 타락하게 된다”로 웅변적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인간문명을 겨냥하고 있으며, 『에밀』은 인간사회와 문명 전체에 대한 비판서라는 점은 익히 알려

져 있다. 루소는 인위적인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인간은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자연인들이 이루는 사회의 진보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에밀』은 사회를 전면으로 부정하였다기 보다, 국가의 시민이 아닌, 인간성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될 때 인간의 능력은 해방될 수 있다는 관점을 대변한다(Dewey, 1916/2016: 161). 다시 말하여, 인위적이고 부패하고 불공평한 사회 질서 대신에 자연의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곧 인간성에 기반을 둔, 새롭고 보다 나은 사회 질서를 건설하는 것이다(Dewey, 1916/2016: 163).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모토 속에서도 드러나듯이, 여기서 교육은 인위적인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상태의 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소극적인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모순적인 관점이다.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개인이 어떻게 사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가?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자신이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 사회의 지원과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일은 사회를 떠난 자연인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뒤이는 사회의 영향을 제거한 개인주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질문은 곧 개인과 민주사회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보다 복잡하다. 민주주의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플라톤이 가장 회의를 가졌던 데모스(demos)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이다. 자칫하면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다. 데모스가 교육받지 못했을 때, 즉 데모스가 제대로 된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전제정치의 위험과는 또다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정체가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저마다의 개인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체가 민주주의이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 처칠이 말했듯이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다른 정치형태를 제외하고 최악의 정치형태가 민주주의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all those other forms that have been tried time to time)”이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에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부투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렌트에 의하면 “우리는 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또 돌아가지 않게 될 세계”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Arendt, 1968/2005: 258). 비록 현실의 세계는 “늘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도 “돌아가지 않게 될” 그런 세계이지만,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 속에서 새로운 탄생성의 희망을 본다. 이 희망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데모스가 진정한 민주시민이 될 때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에 탁월한 견해를 선보였던 듀이와 아렌트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주의에 헌신된 탁월한 정치사상가였다. 고린된 이성의 근대적 개인관에 대한 문제의식도 유사했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교육의 긴밀한 관련을 논하였던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에 관해 듀이는 정치와 교육의 밀접한 관련을 주장한 반면, 아렌트는 정치와 교육의 분리를 주장한 점에서 양자는 매우 대비되는 지점에서 서 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교육관도 표면상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중대한 차이의 지점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정치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두 사람의 상이한 입장이 과연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지를 탐색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

## 2.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는 통상적 관점 : 개인주의적 관점

민주시민교육을 논할 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관점은, 개인에게 민주적 자질을 가르쳐서 민주 시민으로 형성한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쓰여진 『민주적 정신 교육하기(*Educating the Democratic Mind*)』, 『시민 창조하기(*Creating Citizens*)』, 『젊은이들의 민주적 인성개발(*Developing Democratic Character in the Young*)』 등의 책제목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Biesta, 2006/2022: 206). 거트먼(Amy Gutmann)은 『민주교육(Democratic Education)』에서 정치교육을 “정치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덕목, 지식, 기술의 함양과정”으로 정의하고, 정치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을 의식적으로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Biesta, 2006/2022: 206). 이상의 내용은 보통 민주시민교육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통상적인 방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이 할 일은 개인을 민주적 시민성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여, 이 관점은 교육을 통하여 민주적 소양과 자질을 갖춘 개인을 만들어서 그 개인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개인에게 민주적 자질과 소양을 교육하는 것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관점을 민주시민교육의 개인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Biesta, 2006/2022: 210). 이 관점은 칸트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서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1724년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칸트가 살던 시대는 전제 통치로부터 민주적인 정부형태로의 과도기 상태에 있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성의 자질에 관해 고민하였으며, 이것이 근대적인 민주적 주체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18-19세기에 걸쳐 전개된 시민혁명은 모든 사람은 법률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치권력은 바로 그 자유, 평등의 시민에 기초한다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립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이주한, 2009: 353).

이러한 배경 하에서, 『베를린 월간지』에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칸트가 남긴 유명한 글은 계몽된 개인의 이성의 힘을 신뢰하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 준다.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이 지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미성숙이 지성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지성을 사용할 결단력과 용기가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Sapere aude!*) 자기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좌우명이다.

위 글에서 칸트는 스스로의 미성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 자율성을 지닌 개인을 근대적 개인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합리적 자율성을 지닌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엇보다 공적으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독서계의 모든 공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학자의 입장으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며, 이것이 근대적인 민주적 시민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것이 아렌트가 『칸트정치철학 강의』에서 해석한 칸트의 민주적 시민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관점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근대적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교육은 특정 자질을 갖추도록 개인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형성된다. 이 접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와 민주적 과정에 대해 가르치는 것(지식의 요소), 둘째 숙고, 집단적 의사결정, 그리고 차이를 대하는 법 등 민주적 기술의 습득을 촉진하는 것(기술의 요소), 민주주의를 향한 긍정적 태도의 습득을 지원하는 것(성향 혹은 가치 요소) 등이다(Biesta, 2006/2022: 205).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주의적 관점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파악할 때,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정치에 대한 교육의 수단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개인의 차원에 국한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킨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 넓은 차원의 이해를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주의를 교실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만 국한함으로써 민주시민을 형성하는 다양한 차원을 보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 예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의 조직이나 관계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면 그것은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개인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대안적인 관점이 요청된다. 이하에서는 듀이와 아렌트의 관점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듀이와 아렌트의 관점

#### 1) 듀이의 관점

##### (1) 개인과 사회의 관계

듀이는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는다. 듀이는 근대의 고립된 이성에 의한 개인관을 비판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듀이의 문제의식은 심신이원론, 개인과 사회, 교과와 생활, 노동과 여가 등에서 일체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듀이의 확신도 민주주의가 계급간, 인종간, 집단간 분리를 철폐함으로써 더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인간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것에 있다.

칸트를 비롯한 근대의 사상가들이 개인을 자신의 ‘이성’이나 ‘의식’이라는 중심에서부터 사고하였다면, 듀이의 논의에서 새로운 중심은 “중심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듀이적

인간관은 중심이 정해져 있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축적된 유기체로 등장한다(Biesta, 2006/2022: 213). 이에 따라 듀이에게 있어 사회적 환경은 개인들의 지적, 정서적 성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한다. 개인은 자기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지적, 정서적 성향을 갖추게 된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의사소통은 그 공동의 것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다(Dewey, 1916/2016:43). 따라서 개인을 형성하는 매개로 상호작용 혹은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의사소통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물건을 전해주는 것과도 다르고, 파이를 나누어 먹듯이 전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과도 다르다(Dewey, 1916/2016: 44). 이 의사소통은 공동의 이해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유사한 정서적, 지적 성향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Dewey, 1916/2016:44). 듀이에게 사회화는 의사소통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이 의사소통을 통해 경험이 확장되기 때문에 모든 의사소통은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Dewey, 1916/2016: 45). 또한 듀이의 의사소통에서 참여도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듀이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참여를 통하여 “적어도 두 가지 서로 다른 행동의 중심에서 무언가를 공통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Biesta, 2006/2022: 214). 요컨대, 개인은 어떻게 민주시민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듀이의 대답은,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공동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사회의 공유된 집단의식이나 가치관, 성향을 자신의 것으로 갖추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듀이의 개인은 철저히 사회와 연결된 개인이라 할 수 있다. 듀이는 『경험과 자연 (*Experience and Nature*)』에서, 인간이 갖추게 된 지능과 의미는 상호작용의 특이한 형식에 따른 자연적 결과물이라고 밝히고 있다(Dewey, 1958: 180). 또한 듀이는 “정신의 활동성”이 “사회적 조건이 장착된 교육에 의존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로부터 듀이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사유하고 성찰하는 능력은 사회적 기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듀이에게 있어 민주적 시민은 사회와 연결된 사회적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회적 지능은 민주주의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 (2)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그렇다면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에서 교육은 무엇보다, 삶의 사회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한다(Dewey, 1916/2016: 41). 듀이에 의하면 교육은 사회적 기능이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사회집단의 생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도와 발달을 도모하는 일이다(Dewey, 1916/2016: 147). 듀이의 관점에 따르면, 민주사회에 필요한 태도와 성향은 아이들에게 신념, 정서, 지식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Dewey, 1916/2016: 65). 그것은 민주적 환경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그 성향을 형성하는 활동 속에 개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가능하다(Dewey, 1916/2016: 59).

그런데 이 말은 교육의 질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집단의 일반적 삶의 질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과 동일하다(Dewey, 1916/2016: 147).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기르고자 하는 자질은 직접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학생들이 어떠한 공동체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교육의 질

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듀이가 상정하는 민주주의는 교육내용이나 특정 자질, 속성보다는 ‘삶의 형식’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형식으로서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듀이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의 체제나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Dewey, 1916/2016: 155). 다시 말하여 듀이에게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양식, 즉 보통선거와 선거에 의해 선발된 공직자들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법을 제정하며 정부의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는 일련의 양식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서, “공동의 사회생활 그 자체에 대한 관념”이다(Dewey, 1927/이주한, 2009: 357 재인용).

민주주의가 내용이나 정치 형태가 아니라 삶의 형식에 가깝다면, 어떠한 삶의 형식을 갖춘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인가? 듀이는 민주적 공동체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한 집단 내의 공동의 관심사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가 하는 것으로, 이를 ‘집단내 의사소통의 자유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집단과의 교섭이 얼마나 충만하고 자유로운가라는 것으로, 이를 ‘집단간 상호작용의 자유도’라고 할 수 있다(Dewey, 1916/2016: 149). 그 예로, 범죄집단이 민주적 공동체가 아닌 것은 그 성원들의 공동관심사는 약탈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집단은 다른 집단과 유리되어 있어 삶의 가치를 주고받을 기회가 전연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가정의 경우, 가족 간의 관심사가 활발하게 공유됨으로써 서로의 지적·심미적 관심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의 진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또한, 그 가정은 개방적이어서 다른 집단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기업체나 학교, 문화기관 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정치조직에도 시민의 역할을 하면서 참여한다. 즉 다양한 관심사가 의식적으로 공유되고 전달되며, 다른 공동체와 다양하고 자유로운 상호교섭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주적 공동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Dewey, 1916/2016: 150). 이 기준은 전체적인 사회와 민주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전체국가에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에 공동관심사가 많지 않으며, 계급간·인종간·직업간 많은 장애로 인해 공동관심사가 공유되지 않고, 사람들 간 접촉이 적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모든 관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평등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공동관심사가 다양하게 공유될 수 있고,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므로 민주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Dewey, 1916/2016: 155). 듀이에게 있어 민주주의와 교육은 불가분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교육의 민주주의에 기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이주한, 2009: 351). 듀이는 정치와 교육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꿰뚫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다(이주한, 2009: 352). 그리하여 삶의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체제나 교육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리가 철폐됨으로써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계속해서 활발하고 유기적으로 축적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적 관점과는 매우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교육은 민주적 자질을 가진 개인을 길러내는 것을 민주교육의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의 투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복종할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치가 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Dewey, 1916/2016: 155).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발적 성향과 관심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주의적 관점을 일정부분 공유한다. 그러나 듀이의 삶의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넘어선다. 이것은 민주적 성향과 자질을 가진 개인을 키워내는 것을 넘어, 그 개인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만들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배우는 교과, 교육적 관계, 수업환경, 학교의 체제 등 개인이 속한 환경 전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학생은 내용을 배움으로써만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하는 공동의 활동, 집단, 제반 환경 전체가 민주적인 조건이 될 때 그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 관심을 키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를 지닌다(Dewey, 1916/2016: 155). 이 점에서, 듀이는 학교 자체가 작은 공동체, 배아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Dewey, 2007: 32). 학교자체가 작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회와 긴밀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교육과 정치의 연속성을 실현하려고 하였던 듀이의 의도를 잘 반영해준다. 듀이가 교육은 무엇보다 삶의 사회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하였을 때(Dewey, 1916/2016:41), 그 연속성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이 재조직 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체제가 민주주의 양식을 반영한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자체도 실제 사회와의 단절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교과내용과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 간의 구분도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행함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듀이의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며,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 제목자체도 듀이의 그러한 문제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 2) 아렌트의 관점

### (1) 개인과 사회의 관계

아렌트의 논의에서 개인은 복수성(plurality)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는 듀이와 마찬가지로 근대의 고립된 개인관에 대한 비판 위에 자신의 인간관을 전개하고 있다. 아렌트의 근대적 인간관에 대한 비판은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아렌트는 자신의 정신 속에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데카르트적 사고의 특징을 “자급자족성과 무세계성”이라고 지적한다(*Life of Mind*: 80, 이하 LM으로 표기). 이와 같은 사고에서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 물질이나 타인이나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심지어 나의 신체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렌트는 이와 같은 데카르트적 사고의 특징을 유아론이라고 지적한다. 아렌트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유아론은 자아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본적으로 주장하거나, 또는 자아와 자아 자체에 대한 자기의식만이 검증가능한 지식의 일차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LM: 78) 이와 같은 데카르트적 개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등장한 아렌트의 인간관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복수성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에 의하면, 한편으로 인간은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살았고,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다른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은”(The Human Condition: 85, 이하 HC로 표기) 고유하고 유일한 존재이면서, “단수의 인간이 아니라 복수의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고 세계에 거주한다”는(HC: 84) 복수성의 존재이다. 아렌트가 가장 인간적인 활동양식으로

제시한 행위의 개념 역시 이러한 복수성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행위는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없이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활동”이다(HC: 83) 따라서 저마다 다른 유일성의 개인들이 함께 있는 복수성의 존재가 아렌트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먼저, 아렌트에게 사회는 매우 부정적인 용어라는 것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근대이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이 무너지면서 사적영역이 공적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이 사회이다. 이로 인해 타인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공적영역이 소멸하게 되면서, 사람들 간 맺은 관계가 행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질성의 대중으로 변질되면서 등장한 것이 사회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중사회인데 대중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의 행동규범(behavior)에 따른 획일적인 양식이나 매뉴얼, 지침에 따라 행동하면서 통계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단위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익명성의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사회이다.

반면에 세계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영역을 지칭한다. 공적영역은 우리의 공동세계를 둘러싸고 복수의 인간들 간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다시 말하여 공적영역은 공동세계에 관하여 자신의 독특한 생각과 말로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영역에서 복수의 존재들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자신이 누구인지(who I am)를 드러내는 활동양식이다. 즉, 공적영역은 공동세계에 관한 자신의 독특함과 유일성을 말과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는 관계로 맺어지는 공간으로서, 아렌트는 이를 사회와 구분하여 세계라고 부른다.

아렌트에게 있어 개인과 세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인은 타인과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 물망처럼 얽혀 있다. 말과 행위는 고립된 개인에게는 필요가 없다. 오직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소통할 필요가 생기고 그것의 기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말과 행위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과 행위로 나를 드러낼 때, 그것은 독백이 아니며 언제나 그것에 반응할 타인을 요청하게 된다. 나의 말과 행위에 반응할 타인이 없으면 나의 행위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말과 행위에 반응하는 타인에게 매여있는 존재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복수의 존재들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통하여 출현하는 공동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다 새롭게 변혁하는 기제가 된다. 공적영역은 사적영역과는 구분되며, 우리의 공동세계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동세계에 관한 각 개인의 새로움과 탁월성의 출현이 이 낡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계를 새롭게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된다. 따라서 세계는 함께 행위하는 개인들로 인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이상의 논의로부터, 아렌트적 민주시민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아렌트는 무엇보다 공적영역의 회복을 꿈꾼다고 할 수 있다. 공적영역은 우리의 공동세계를 논의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적영역과 구분된다. 또한 그것은 모두가 동등하지만 동질적이지는 않고, 모두가 다르지만 고립되지 않은 공간이다. 서로 다른 복수성의 존재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공동세계에 관한 새롭고 다양한 생각과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공적영역이다. 이러한 공적영역이 회복될 때 그

곳이 바로 민주주의가 꽃피는 장이 될 것이다.

아렌트의 논의의 중심에 공적영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교육의 위기(The Crisis in Education; 이하 CE)”도 그러한 공적영역에 출현할 수 있는 탄생성의 개인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아렌트는 인간존재를 ‘생명의 차원’과 ‘세계의 차원’이라는 이중적 차원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이 출생하면서 갖게 되는 생명의 차원은 다른 동물과 공유하는 차원으로서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의 존재만이 아니라 세계적 존재이기도 하며, 이 세계적 차원으로 인해 다른 종과 구분된 독특하고 고유한 개별적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 이 인간존재의 이중적 차원으로 인해 어른세대에게도 아이의 두 차원을 담당할 이중의 책임이 부여된다. 즉 한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사적영역에서의 보호와, 그 아이가 이 세계 속에 고유한 존재로 출현할 수 있도록 세계로 안내할 공적영역의 책임이 그것이다. 이 두 차원의 책임이 아이에 대한 어른세대의 교육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학교는 사적영역에 속한 아이가 서서히 공적영역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독특한 영역이다. 학교는 공적영역 자체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매개된 형식으로 이 세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이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세계가 어떠한 곳인가를 배우는데, 즉 교과를 통하여, 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 이 세계에서 타인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 아렌트에 의하면, 학교는 세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학교는 실제의 세계는 아니지만, 세계를 표상하는 곳으로서 세계를 가르치는 곳이다(CE: 254). 또한 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 책임은 성장에 필요한 사적영역의 책임이라기보다, 인성적 자질 및 재능의 자유로운 발달이라고 부르는 탄생성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CE: 254). 이것은 각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유별성으로서,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움을 갖고 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질이다. 요컨대, 학교는 탄생성의 개인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세계를 가르치고 안내할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아렌트의 논의는 학교라는 매개영역이 세계 자체는 아니지만 세계의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에서 함양해야 할 학생의 자질이 자신의 유별성과 고유함을 가지고 타인 앞에 출현할 수 있는 탄생성의 개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렌트가 학교는 정치영역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아렌트는 “학교는 결코 세계가 아니며 그런 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CE: 254), 또 “그것은 아직까지 실제의 세계는 아니며”(CE: 254), “학교는 선-정치영역”이다(CE: 256) 등, 논문 곳곳에서 학교는 정치영역과 다르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아렌트의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려는 아렌트의 의도는 무엇일까? 몇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첫번째는 아직 성장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고려이다. 아이들은 그 성장을 위하여 사적영역의 안전한 보호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공적영역의 따가운 광채, 즉 타인의 시선과 잣대, 엄격한 규율과 평가 등의 잣대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속에 성인으로서 출현하기 전에 아이들은 먼저 사적영역의 안전한 보호 속에 자라갈 필요가 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공적영역의 따가운 시선에 노출된 아이들이 쉽사리 망가지는 사례를 통해 아직 성장중인 아이들에게 공적영역의 직접적이고 이른 노

출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적영역의 속성이 매개된 형태로, 또 표상으로서의 학교에서 경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위의 문제이다. 아렌트는 정치영역과 교육영역의 가장 큰 차이는 권위의 문제와 관련 된다고 한다. 정치영역은 모두가 동등한 성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므로 권위의 문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영역은 어른세대와 어린세대간의 관계의 문제로서 세계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어른 세대의 권위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동한다. 교육에서 권위는 세계에 대한 책임의 형태로 드러나며 세계를 안내하는 책임이 어른세대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자는 아이도 맡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그만큼 세계에 대한 책임은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교육은 무엇보다 세계로 안내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이 책임 때문에 권위가 중요하게 기능한다. 그리고 이 권위가 작동하는 곳에서만 세계는 전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렌트가 논문 전반에서 고착된 보수주의도 비판하지만, 진보주의 또한 강도높게 비판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진보주의는 바로 아이와 어른 간의 선, 교과와 세계간의 선을 없애버림으로써 권위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거하였고, 그 때문에 공부를 놀이로, 어른과 아이간의 교육적 관계를 아이들만의 세계로 전락시켰으며, 결국 세계에 대한 책임을 아이의 복지에 대한 사적책임으로 환원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계 속에 유별성의 개인으로 출현할 수 있는 세계라는 근본 조건을 제거한 것과 다르지 않다.

#### 4. 학교라는 아이디어에 관한 상반된 입장

그렇다면 교육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듀이와 아렌트의 상반된 입장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두 사람의 상반된 입장은 학교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대립된 관점에서 비롯된다. 학교라는 아이디어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육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것들 중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들을 교육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일은 자유인의 일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유용한 것들을 교육하지 않고, 비천한 일(banausos)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유용한 일에만 참여하도록 교육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떤 일, 기예나 배움이라도 자유인의 신체나(혹은 영혼이나) 정신을 덕의 활용이나 실천을 위해 쓸모없게 만드는 한, 그것들은 비천한 일로 믿어져야만 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신체를 나쁜 상태로 놓이게 하고 또 임노동을 위한 그러한 일 모두를 비천하다고 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예들은 정신에 여가(schole)를 남겨두지 않으며, 또한 정신을 저질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337b4-14. 강조는 필자의 것

위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교육의 가장 오래된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자유교육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 위 인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교육과 관련하여, 유용한 것들이 아니라 정신을 덕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신을 덕있게(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비천한 것으로서 배격되어야 마땅한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정신에 ‘여가

(schole)’를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가’라고 번역된 스킨레는 일상생활의 유용성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신의 자유로운 상태와 관련된다.

라틴어의 스킨라(scholar)/ 희랍어로 스킨레(schole)는 ‘학교’(school)의 어원이 되는 말이다. 스킨레가 여가(leisure)의 뜻도 가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학교가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정도의 한가한 사람들이 모여 책이나 보는 곳이라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허스트(Paul Hirst)에 의하면, 고대 아테네에서 자유교육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자유교육의 소극적 의미로 그것이 ‘자유인’들이 받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자유교육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자유교육의 적극적 의미는 그 교육이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자유교육으로 불렸다는 것이다(Hirst, 1965). 자유교육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무지와 편견,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가? 학교라는 말에 ‘한가한’, ‘여유로운’의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라는 곳의 본래적 의미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의 즉각적인 흥미나 관심사들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데 있다(Bantock, 1980: 김안중, 2023: 95 재인용). 이것이 사적영역과 구분되는 학교라는 곳을 별도로 세워서 스킨레를 경험하도록 한 진짜 의미이다. 달리 말하여, 학교는 스킨레를 위해 세워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킨레의 본래적 의미는 여가도 아니고, 놀이도 아니고, 바로 격리인 것이다(김안중, 2023: 95). 이를 위하여 학교는 일상생활의 번잡함, 삶의 필연성, 유용성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삶의 필연성과 유연성으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우리는 정신의 자유를 스킨레라고 불렀고, 그것이 오늘날 학교인 스킨(school)의 어원이 되었다. 듀이의 사고는 바로 이 학교의 이념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삶과 교육에 관한 희랍의 철학을 극복하는 능력은 자유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가치 등을 나타내는 이론적 용어들을 이리저리 바꾸어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 존엄성, 초연하게 남과 어울리지 않는 독립된 자세에 비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삶이 우월하다는 점에 대한 정서적인 변화만으로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론적, 정서적 변화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참으로 민주적인 사회, 모든 사람이 유용한 봉사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가치있는 여가를 즐기는 그런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을 실제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Dewey, 1916/2016: 383).

듀이는 교양과 유용성을 분리하여 사고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교육관을 강도높게 비판한다. 듀이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양은 자유인 계급의 것, 유용성은 비자유인 계급의 것’이라는 식으로 양자가 필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본 점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꼭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면 유용하면서도 동시에 자유교육의 효과를 지니는 교육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듀이는 밝히고 있다(Dewey, 1916/2016: 385). 듀이는 양자를 꼭 분리시켜 사고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자유교육과 실용적 교육 사이의 분리를 없애므로써 ‘삶에 유용한 자유교육’의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민주사회에서 교육의 과업은 이러한 이원론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한다(Dewey, 1916/2016: 388). 그리하여 듀이는 우리 교육에서 오랫동안 배제하였던, 놀이와 일이라고 부르는 학교 밖의 활동들을 학교의 교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 삶에 유용한 일과 우리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교육이라는 양

자의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한 듀이의 교육과정은 ‘목공, 요리, 정원가꾸기, 바느질하기, 연극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드러난다. 이와 같은 교과목의 구성에 대해 듀이는 “학교에서의 작업활동이야말로 참으로 자유교육적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Dewey, 1916/2016: 311).

이와 대조적으로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적영역은 삶의 필연성과 관련된 영역이었고, 공적영역은 이 필연성으로부터 자유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양자는 위계의 관계가 아니다. 사적영역의 질서는 ‘내 것(idion)’으로서, 생명의 출생과 성장,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영역이었다면, 공적영역의 질서는 ‘공동의 것(koinon)’으로서 우리의 공동세계를 위한 영역이었다. 양자는 각자가 담당해야 할 고유한 책임이 있기에 그것은 구분되어 정당하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영역은 이 세계 속에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존재해야 한다. 양자가 경계를 지키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이 세계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은 위계적 관계는 아니지만,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아렌트의 관점은 전통적으로 ‘현상(appearance)’과 ‘존재(Being)’의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였던 철학적 전통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플라톤 이래 전통적으로 존재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는 이분법적 위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상세계에 대한 의미탐색을 어렵게 하였으며 현상을 존재에 부차적인 것으로, 존재에 종속시킨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로서 현상의 세계를 우위에 놓고자 하는 시도 또한 아렌트에게 위계적인 방식으로서 거부된다. 아렌트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의 세계를 없애고 현상세계를 우위에 놓고자 하였던 니체나 마르크스 또한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서, ‘플라톤적 도치’라고 비판한다. 아렌트는 형이상학적 세계가 그 힘을 잃은 근대이후에도 두 세계의 구분은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이상학적 세계가 실제로 그 존재적 위력을 가지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세계를 제거하면 나머지 현상세계 역시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LM: 28).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세계를 제거하면, 이로 인해 우리는 비가시적 영역 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LM: 30).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축소와 상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계의 상실로 인해 결국 우리 삶의 의미의 영역과 인간의 사유능력 자체의 축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 또한 비판된다. 두 영역의 구분을 없애버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적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공적영역의 소멸이다. 이것은 사적영역의 전면화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사적영역도 공적영역도 구분할 수 없는 편평한 상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것의 결과는 독특함과 탁월성의 개인들의 출현이 아니라 사적관심사의 전면화로서, 이 때 공적영역의 소멸은 모두가 단일한 행동규범을 따라 획일적으로 행동하는 대중사회의 출현으로 귀결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공적영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의 안전함도 경험할 수 없는, 편평하고 축소된 세계에 놓이게 될 뿐이다.

사적영역의 필연성과 유용성으로부터 공적영역을 보존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것으로 매몰될 수 없는, 공동의 가치, 혹은 인간다운 삶의 양식을 보존하려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광풍같은 사적영역의 거대한 위력으로부터 잠식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

것은 사적영역의 필연성과 유용성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만 보호될 수 있는 공적영역의 자유였고, 그것의 표상으로서 스콜레를 보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스콜레를 위해 세워진 공간, 학교의 이념이며, 듀이와 아렌트의 상반된 입장은 바로 이 학교의 이념에 대한 대비된 입장에서 비롯된다. 듀이와 아렌트 중 누가 옳았을까? 그것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 ■ 참고문헌

- 김안중, 『故 김안중 교수의 교육철학산고』, 교육과학사, 2023.
- Aristoteles 저, 천병희 역, 『정치학』, 숲, 2009.
- 이주한, 「듀이 철학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방안」, 『교육사상연구』 23권 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09, 351-372.
- Gert Biesta 저, 박은주 역, 『학습을 넘어』. 교육과학사, 2022.
- Hannah Arendt 저, 서유경 역, 「교육의 위기」, 『과거와 미래사이』, 푸른숲, 2005. 235-263쪽.
- Hannah Arendt 저,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
- Hannah Arendt 저, 홍원표 역, 『정신의 삶』, 푸른숲, 2019.
- Hannah Arendt 저, 김선옥 역, 『칸트 정치철학 강의』, 푸른숲, 2002.
- John Dewey 저,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2016.
- John Dewey, *Experience and Natur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 Paul Hirst,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in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 London: R.K.P.113-138. 1965.
- Rousseau 저, 김중현 역, 『에밀』, 한길사, 2003.

##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정치의 관계 : 듀이와 아렌트의 관점」에 대한 논평문

목원대학교, 김세원

상기 본문은 “민주주의에 헌신한 탁월한 정치사상가”인 듀이와 아렌트가 “근대적 개인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했으며 “민주주의와 교육의 긴밀한 관련”을 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 두 사상가의 차이점을 정치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입장에서 찾으려 합니다. 나아가 입장 차이의 발생 근거로 학교에 대한 상반된 관념(4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상적 맥락에서 20세기 미국의 사회참여 사상가인 두 인물의 시민교육론을 비교 고찰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박은주 선생님께(이하 발표자)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합니다. (듀이의 사상과의 비교는 논평자의 역량이 상당히 초과하는터라 아렌트의 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제기하고 있음에 양해를 구합니다.)

### 1. 개인과 사회의 관계 - 교육과 정치의 관계 - 교양교육과 실용교육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이 교육의 수단화, 민주주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낳는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보고, 듀이와 아렌트가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상가 모두 원자론적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개인과 사회(아렌트의 경우 ‘세계’)의 분리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듀이의 경우 개인과 사회의 분리불가능성이 교육과 정치의 연속성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실용주의 교육 방법론이 도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렌트의 논의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엄혀 있음’이 교육과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리고 왜 그것이 학교 교육의 특정한 양상 내지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가를 발표문에서 읽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저 개인주의적 관점의 교육론과 구별되는 두 사상가의 공통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두 사상가의 공통된 생각이 교육과 정치의 관계, 교양교육과 실용교육의 관계에서 다르게 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달리 말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논문의 주장에 있어 어떤 기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2. 중간 영역으로서 학교

아렌트가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핵심주장은 3장 2절의 아래의 대목에서 발견되는 학교에 대한 아렌트의 진술로부터 도출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렌트가 학교는 정치영역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아렌트는 “학교는 결코 세계가 아니며, 그런 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그것은 아직까지 실제의 세계는 아니며”, “학교는 선-정치 영역”이다 등, 논문 곳곳에서 학교는 정치영역과 다르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아렌트의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

학교는 인간의 ‘제2의 탄생’, 즉 세계 안으로의 ‘편입’의 통로입니다. 학교는 인간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벗어나서 첫 번째로 접촉하는 ‘공적인 세계’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 위치한 제도입니다. 아렌트는 학교의 ‘공적 특성’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학교라는 공간을 ‘작은 공적 영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로 대표되는 교육의 영역은 사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아이의 양육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구성원의 동등성으로 담보되는 공적 영역과는 달리 특정한 종류의 권위가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의미에서 학교는 정치 세계를 표상(represent)하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발표자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삶’을 대신해 최선의 삶으로 제시한 ‘관조적 삶’의 양식으로서 스킨레를 아렌트의 학교 관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관심사 내지 유용성을 배제하고 자유교과와 교양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 영역으로서 학교의 공적 영역의 특징, 즉 ‘정치 세계의 표상’은 오히려 정치와 교육의 분리가 아니라 그것의 분리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아렌트는 “학습을 실용으로, 공부를 놀이로 대체”하는 실용주의 교육의 교과와 교육 방식을 비판합니다. 교육이 학생의 흥미를 추구하고 단순한 생존의 기예를 습득하는 것으로 채워져서 안 됩니다. 이러한 비판을 발표자처럼 아렌트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에 대한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 제시된 아렌트의 정치(영역) 개념에 따르면, 스킨레로서의 학교 관념은 교육과 정치의 분리가 아니라 그 연속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 3. 교사의 권위와 자유 정신의 양립 가능성

분명히 아렌트는 교육의 영역을 “공적, 정치적 삶의 영역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진술의 맥락은 생존과 관련된 사적 영역과의 관계보다는, 교육 영역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권위 개념과 과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자유교과와 교사의 권위의 관계입니다. 교사의 권위는 스킨레가 목표로 하는 “자유 정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보다 진리를 자신의 동반자로 여기겠다고 말한다는 점

에서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렌트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진리와 현상에 대한 아렌트의 생각과 관련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이 주로 근거로 삼고 있는 「교육의 위기」의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아렌트는 교육 활동의 본질을 ‘보존’으로 간주합니다. 교육은 “무언가를 소중히 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세계가 ... 자신을 보전하기 위해서 늘 새로워야”하며 “세계가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기에 “[아이가 담지한] 새로움을 보전해 ... 모종의 낡은 세계에 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사의 권위는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으로 세계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며 이 ‘지시에 따라’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은 교사를 ‘먼저 온 자’로 “모종의 권위로 인정될”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권위는 어떻게 ‘새로움’과 ‘자유의 정신’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덧붙여 듀이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제출할까요?

#### 4. 과거와 미래 사이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가 권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문에서는 “정치영역은 모두가 동등한 성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므로 권위의 문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교육은 권위가 작동하는 영역이고 정치영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여 교육과 정치의 분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미국적 상황에서 정치와 교육의 긴밀성의 문제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질서’와 ‘새로 온 사람들’로 창립된 미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환상’이 부추긴 새로운 교육 이론의 무비판적 수용, 평등 관념의 대중사회로의 귀결로 따른 평준화 교육과 교사의 권위 상실 등이 초래한 교육의 위기라는 구체적 맥락으로부터 논의가 진행됩니다. (물론 아렌트는 이러한 미국적 현상이 보편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교육의 위기」에서 아렌트가 궁극적으로 제기하는 바는 교육과 정치의 분리를 요청하는 것 자체에 있기보다는(나아가 발표자의 해석처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교육에서 ‘권위의 복원’의 의미에 있을 것입니다.

일견 아렌트는 정치 활동에서 권위를 배제합니다만, 이때 권위는 특정한 의미에서의 권위일 것입니다. 「교육의 위기」에서 아렌트는 “정치적 공적 삶에서 권위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모종의 평등한 책임이 요구될 것이라는 의미다. ...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세계에 대한 모든 책임 거부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하며, 권위와 책임이 상실된 정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권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권위가 세계 내 사물들의 추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묶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권위는 사적영역에서 작동하는 ‘지배’와는 다릅니다. 정치 행위는 권위를 배제 하지 않습니다. 공동 행위로서 정치 행위에서 권위는 권력을 지탱해줄 수 있는 정통성의 문제와 관련된 ‘과거’에 대한 존중과 인정으로 작동됩니다. 교육의 문제 역시 정치공동체의 존속, 달리 말해 세계의 존속이라는 차원에서 ‘과거’

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묻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아렌트의 <햄릿> 인용문은 보다 엄밀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우리는 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또 돌아가지 않게 될 세계”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비록 현실의 세계는 “늘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도 “돌아가지 않게 될” 그런 세계이지만,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 속에서 새로운 탄생성의 희망을 본다.

여기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으로 번역된 문장은 데리다가 <마르크스의 유령>에서 이 문장을 “시간의 이음매가 어긋나 있다”로 해석하고 있는 “the time is out of joint”입니다. 아렌트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황”이며 이를 위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논평자가 이해하기로는 아렌트의 <햄릿> 인용은 시간성의 차원에서 ‘과거와 미래사이 현재의 행위를 요청’하는 맥락-전통과 혁신의 문제, 조건지어진 존재인 인간은 어떻게 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렌트의 <햄릿> 인용 맥락과 발표자가 위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를 발표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부연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5.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와 시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고 행위하는가에 대한 입장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과 시민성 함양의 과제는 다른 양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아렌트의 시민은 ‘사유하는 시민’ 보다는 ‘소통하는 시민’이지 않을까요? 사유와 소통이 대척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소통하는 시민’은 현실적 타자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끊임 없는 사유와 판단, 표현과 설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유하는 시민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평자가 보기에 아렌트의 민주시민교육론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제는 ‘권리를 가질 권리’의 문제, 즉 근대국가에서 시민성과 인간성의 관계와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과제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원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의 타자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공동체의 경계에서 진행되는 갈등과 불화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아렌트의 민주시민교육론은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와 교사가 어떤 ‘과거’에 기대어,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그려내며, 학생들을 세계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자(new comer)’로서 학생이 사그라지는 세계에 새로움을 더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4장에서 제시한 교과와 교육 방법의 차이 외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듀이와 아렌트의 차이점을 일별할 수 있을지, 그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나 아렌트 '사유'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영남대학교, 서초이



# 한나 아렌트 ‘사유’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영남대학교, 서초이

## 1. 문제제기

우리는 그간 설명 위주의 수업, 암기 학습, 지식 중심의 교육과 같은 지식 중심 교육을 비판하며 상호 간의 소통과 대화, 토론과 문제제기 방식을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한 깊이 ‘사고’하기를 더욱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이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학습 결과나 취업과 직결되는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주로 취업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종종 생산 수단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교육을 특정 목적에 동원되기 위한 빈틈없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Masschelein & Simons, 2015). 교육이 단순히 취업 가능성과 같은 외부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 교육이 ‘무사유(thoughtlessness)’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무사유는 ‘사유하지 않음’(non-thinking)을 의미하며,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sup>1)</sup>(1963)과 『정신의 삶』(1978)에서 언급한 개념이다. 아렌트는 무사유를 인간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차이를 소멸시키는 근본적 악으로 여겼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는 근본 악의 원천을 주어진 상황에서 순응적으로 행동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설명한다. 무사유는 이미 형성된 사고의 틀 속에서만 상황을 이해하려 하며, 타인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능인으로서 존재하게 만든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숙고하지 않으며 나아가 타인과의 소통 등 세계에 참여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무사유의 특징은 우리가 교육에서 무엇을 간과하면 안 되는지를 상기시킨다. 이는 지나치게 학습 결과와 취업 가능성 등과 관련된 역량만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 자본을 축적하는 엔진”(Masschelein & Simons, 2015: 214)과는 거리가 있다. 주어진 목표에만 몰입하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목표로 시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요청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새롭게 생성해 낼 가능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의미들, 즉 사물 그 자체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이 사물에 명칭을 부여하

1) 아렌트의 주요 저작은 다음의 약호로 표기한다. 『인간의 조건』(1958)은 HC(The Human condition), 『예루살렘의 아이히만』(1963)은 EJ(Eichmann in Jerusalem), 『정신의 삶』(1978)은 LM(The Life of the Mind) 로 표기한다.

거나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세계에 참여하는 ‘사유’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는 우리가 영원불변하는 진리를 찾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은주, 2020a: 92). 다시 말해, 내가 받아들인 내용이나 의견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나 아렌트의 사유 개념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나 아렌트의 사유 개념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사유하지 않음, 즉 무사유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렌트의 사유 개념의 의미는 무사유의 개념과 대비될 때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드러나는 악의 평범성 개념을 먼저 고찰하고, 무사유 개념의 의미를 아이히만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3장에서는 사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의 사유 활동을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유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2. 아이히만의 무사유

아렌트는 무사유의 모습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을 통해 특징을 설명한다. 무사유와 악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으며, 악에 관해 깊숙이 자리 잡은 사고방식에 의문을 던진다(Bernstein, 2018:100). 아렌트는 인류적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근본적 원인을 ‘사유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지목한다(LM, 48). 무사유의 사례가 아이히만인 점에서, 법정에서 선 아이히만의 모습을 분석한 보고서는 무사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무사유를 논의하기 위한 초석의 작업으로, 악의 평범성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사유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아렌트가 아이히만에게서 발견한 악은 평범한 외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이히만의 재판이 열리기 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위험하고 탐욕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힌 도착적이고 가학적인 성격의 인물로 생각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드러난 그의 외모는 이러한 예상과 크게 달랐다. 아이히만은 “중간 정도의 체격에 호리호리하며, 중년으로, 근시에도 희끗희끗한 머리와 고르지 않은 치아를 지니고 있었다”(EJ, 52). 이는 그가 전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아이히만을 검진한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의 “정신적 상태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EJ, 79). 정기적으로 그를 만난 한 성직자는 그를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EJ, 79). 이러한 결과들은 그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과는 달리, 일상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아주 일상적이며 평범하면 했지, 결코 악마적이거나 기이하지 않았다”(LM, 17)는 평가를 받았다. 즉, 아이히만의 행위들은 괴물 같았으나, 그의 외모와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완벽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시간을 들여 증명하고자 하였고(EJ, 79, 84), 자신이 유대인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이히만의 행동에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 악한 동기, 또는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단지 주어진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이를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EJ: 74-75). 그가 믿었던 것은 ‘좋은 사회’의 최고 기준인 성공이었다. 그의 직업적 야망은 절대적 범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하였다(Swift, 2011: 141).

평범한 악의 또 다른 특징은 말과 관련되어 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표현한 언어에 주목한다. 그의 언어는 “틀에 박힌 진행 과정, 습관적인 말투, 상투성, 진부한 문구, 인습적이고 표준화된 표현규칙과 행위 규칙”(LM, 18)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언어는 주로 상투어(clichés)와 관용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청용어(Amtssprache)만이 나의 언어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EJ, 105). 재판 과정에서 답을 할 때도 관청어와 상투어를 사용하여 진술한다. 그의 상투어는 재판에 참여한 판사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요청하였다(EJ, 111). 그러나 아이히만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이는 그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LM, 18). 그는 새로운 규칙과 명령이 계속해서 바뀌어도 그것에 대한 불일치나 모순을 느끼지 못했고, 마치 새로운 언어 규칙을 배우듯이 그것을 받아들여 순응하였다. 다시 말해,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없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방식에서 독창성의 결여를 그의 인간성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의 징후로 여긴다(Swift, 2011: 142). 이는 아이히만이 어떤 상황에 대해 동료와 논의하거나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결국 “맹목적인 복종”(EJ, 209)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한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복종/도덕법칙을 “관성대로 굴러가는 기능하기(functioning)”로 설명한다(Arendt, 2013: 77). 이는 주어진 명령을 반복적이고 당연하게 따르면서, 그 내용의 의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악의 평범성은 사유의 결핍, 즉 생각하지 않음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악은 특정한 동기나 원인으로 추적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며, 도덕적, 윤리적 결함이 있는 자만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히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의 행위 결과를 고민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만 충실한 ‘평범한’ 모습 속에서 악이 나타난다(김선옥, 2021: 397). 아렌트는 이러한 ‘생각하지 않음’이 미래에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악’으로 표출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사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의 행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세 가지의 무능

아이히만은 그 자체로 무사유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LM, 17). 앞서 언급하였듯, 아이히만이 진술한 내용은 관용어나 상투어 같은 어구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은 그가 언어적으로나 사고적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아렌트는 “무사유를 말하기의 무능성(inability to speak), 생각하기의 무능성(inability to think) 그리고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이라는 세 가지 무능과 연결한다(EJ, 106). 이는 ‘말’의 무능성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히만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 될 것이다.

먼저,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언어적 기교가 아닌 인용어, 관용어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화자의 양상과 관련된다. 이것은 아이히만이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날개 달린 말”, 즉 관용적인 표현이나 선전 문구를 통해서 명료하게 드러난다(EJ, 105).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언어규칙”(Sprachregulung)에 주목한다. 이것은 나치에서 사용된 일종의 암호로, 학살을 처방하는 암호는 ‘최종해결책’, ‘소개(Aussiedlung)’와 ‘특별취급’(Sonder-behandlung) 등이 있다(EJ, 140-147).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은 안락사 제공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EJ, 177). 이외에도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용어를 ‘근본 해결책’으로 부르자는 서신이 발견되기도 하였다(EJ, 149). 이러한 언어 규칙의 목적은 살인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지식과 이해를 달리하게 만든다.

아렌트는 언어 규칙은 양심의 문제를 가볍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었다고 평가한다(EJ, 149). 살인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보편적 의미가 형성되어 있다. 나치는 이러한 보편적 의미들을 자신들의 이념과 맥락에 맞게 왜곡하고 변형했다. 아이히만이 상투어에 쉽게 감염된 점은 그가 일상적 언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 점과 더불어, ‘언어규칙’에 대해 이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EJ, 150). 그는 나치가 살인에 대한 양심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규칙에 순응하고, 주어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것은 부르주아 인간성을 지닌 순응주의자가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절대적 범죄성의 기준에 기꺼이 순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swift, 2009: 142).

인간의 보편적인 지식과 이해를 비틀어버린 언어 규칙은 ‘생각하기의 무능력’으로 연결된다. 언어 규칙은 인간의 사고를 굳게 만들고 복종하게 한다. 그가 주어진 것을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현실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용어와 관련된 의미들이 단절되었다(박은주, 2020b: 1144). 아렌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기분을 북돋우는 관용구들을 찾을 수 있다면, 모순은 의식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EJ, 113).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세대에서는 유대인 학살은 살인이 아니라 “독일 민족을 위한 운명의 전투”(EJ, 110) 라는 공통된 사상 아래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 규칙은 규칙을 이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을 이방인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아이히만의 정신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EJ, 110). 즉, 아이히만은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인”(EJ, 106) 곳, 사상에 의존하여 독단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독단적 사고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인간이 독단적으로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동일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말한다. 아이히만의 경우, 소속된 조직의 사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유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무관심과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그는 유대인 이주를 위해 유대인과 부하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었고, 유대인 지도층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가슴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EJ, 104). 여기에서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는 조직의 목적 아래에 그들과 함께 사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성격 결함은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EJ, 104).

이처럼, 아이히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조직의 규칙과 가치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의 모든 행동은 유대인을 이주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로 가스실을 고안해 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나치가 전쟁의 패배를 겪기 직전까지 유대인을 처리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을 정도로 자신의 임

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였다(EJ, 174-178). 이처럼, 기계적으로 몸과 정신이 반응하여 자신의 임무 완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사유하지 못한다. 임무를 ‘잘’ 완수하는 것만이 관심의 척도가 될 뿐이다. 한 개의 언어 규칙이 전체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이것 이외의 것에 대하여 사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조직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은 자신만의 주관성에 매몰되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적 인간이 지닌 특성으로 볼 수 있다(HC, 14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이히만은 언어적, 사고적으로 타인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무사유의 사례로 평가된다. 그의 언어 사용은 상투어나 관용어의 반복에 의존하며, 이는 나치의 언어 규칙과 연결된다. 이러한 규칙은 살인 등의 행위를 암호화하고 왜곡하여 인간의 보편적 지식과 이해를 비틀어놓는다.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진부한’ 언어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악’에 길들어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진부함은 동일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즉, 인간의 복수성을 간과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검토를 생략하게 된다. 따라서, 무사유는 자신만의 주관성에 매몰되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소크라테스의 사유

아렌트는 소크라테스를 사유의 대표적 인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표본으로 삼아 사유 활동의 이미지를 그리고자 하였다(LM, 264). 아렌트에게 소크라테스는 직업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자나, 존재와 현상의 위계를 고수하며 진리를 찾는 소수의 전문가나, 타인을 굴종시키는 지배자가 되려는 열망을 가진 자도 아니다(LM, 263).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설득하여 하나의 의견을 갖게 하기보다, 질문하기 등의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 사유하고자 하는 다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a thinker)이다 (LM, 264).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지닌 사람 중 한 사람인 것이다.

아렌트는 소크라테스가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갖고 사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사유 방식에서 찾는다. 즉, 소크라테스는 사유 활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도 소수도 아닌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박은주, 2020b: 97). 그렇다면, 사유하는 소크라테스가 한 일은 무엇인가? 먼저,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는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검토’하는 일이었다. 시장에 나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당혹스러움을 일으키거나 논쟁으로 끝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렌트는 이에 대하여 소모적인 논쟁이 되거나 답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끝맺는 것이 아니며 탐구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으로 보았다(LM, 267).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기존의 규칙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아렌트는 소크라테스가 개념을 발견했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요청한다(LM, 268). 달리 말하자면, 무엇에 대하여 검토하기를 요청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하여 소크라테스가 시민들에게 물음을 던졌던 질문의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매우 소박하고 일상적인 개념”(LM, 268)에 관하여 질문한다. 예컨대, 행복, 용기, 정의 등 정신의 눈을 통해서만 지각 가능한 이념적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더라도 왜 정의로운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지 등의 의견들을 검토하면서 ‘다시’ 정의가 무엇인지로 질문이 귀결된다.

이에 대해 아렌트는 용어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한다(LM, 268). 왜냐하면, 우리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의미에 대해 묻고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검토하기가 반복될수록 자기 자신이 그 의미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에 대해 개념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이 모순으로부터 당혹감(aporia)을 느끼게 된다. 당혹감을 느낀 대화자는 그것의 의미를 되묻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도 답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탐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즉, 그것의 본래 의미에 관한 탐구로 ‘다시’ 이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사유하는가”에 관한 아렌트의 궁극적인 질문과 이어진다. 우리는 사유 과정에서 얻은 사유 대상이나 사유 사물에 관해서 다시 사유하게 된다(LM, 293, 675). 이것은 특정 개념이나 담론으로 결과를 도출한 것을 통해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의 의미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검토하기 형식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LM, 276). 이와 관련하여, 의미 탐구의 구체적인 과정은 응축된 것을 해빙하기(freezing)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LM, 269-270).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단어나 개념은 일종의 얼음처럼 굳어있는 사상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집’은 하나의 단어이지만, 거주하는 자, 오래 거처하는 것 등 다양한 함의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함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집’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내재된 다양한 의미를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LM, 269).

아렌트에 따르면, 최초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 응결된 사상을 해빙시키는 사유가 필요하다(LM, 267). 즉, 우리가 집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 그 자체를 알기보다 집이 지닌 다양한 함의를 풀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표면적 표현이 아닌,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함의를 탐구하며 해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사유는 결빙된 사고와 해빙하기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검토하기는 응축된 사고를 해체하고 결합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의미 탐구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해체시켜 “보이지 않는 척도”로서 개념을 정련시키는 과정을 오가게 한다(박은주 2020b: 1142). 이러한 반복은 사유가 목적성을 갖는 활동이 아닌, 끊임없이 이어지며 항상 새로운 의미의 시작으로 드러나게 한다(LM, 279). 이에 대하여 아렌트는 사유하는 사람은 항상 이 세계에 ‘새로 온 사람(신참자)’이나 이방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한다(LM, 170-171). 그렇다면, 세계에 신참자로 드러나게 하는 사유는 어떤 삶을 수행하고, 어떻게 드러내는가?

아렌트는 소크라테스가 다른 대화자와 함께하였던 검토하기를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는 것을 사유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나와 나 자신 간의 소리 없는 대화”, 또는 “하나 속의 둘”(two-in-one)이라고 부른다(LM, 289). 즉 어떤 현상에 대하여 검토할 때,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사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렌트는 사유 과정에서 나와 나 자신의 분리를 경험하는 “이원성”을 강조한다(LM, 290, 292).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 조건을 복수성에서 찾은 아렌트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크라테스의 하나 속의 둘은 인간이 복수(plural)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M, 290). 이러한 구도에 따라, 사유 과정에서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기도 하며 그것에 대한 답변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LM, 290). 아렌트는 사유의 특징을 설명할 때,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활동적이며,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외롭다”(LM, 52)는 카토의 말을 인용한다. 이것은 사유가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홀로 있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소리 없는 대화 형태인 사유는 “문답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갖는다(LM, 290). 나와 나 자신 간의 대화를 통해 의미의 불일치와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타인과의 불일치보다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가 불편하다고 말할 정도로, 나와 나 자신의 합의를 추구해 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아렌트는 “소크라테스 다운 사유의 유일한 기준은 합의, 즉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다(LM, 290). 이에, 사유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LM, 293). 질문과 답변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나는 자기 불일치와 모순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청된다.

여기서 나 자신과의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속의 둘을 경험한 사람은 개념, 신념, 법칙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자신과 소리 없는 대화 속에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내용이나 의견을 또 다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의미 탐구 활동은 동일한 사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다양한 합의를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탐구 활동을 지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 4. 사유 개념의 교육적 시사점

소크라테스는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법칙들에 의해 굳어진 사고를 해체하려 하였으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불일치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의미를 검토하는 것은 불편하고 낯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세계에 참여하려는 활동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지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는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갖는가?

아이히만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 사회의 문화와 언어에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유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근거나 정당성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는 종종 내적 대화를 무시하고 사회적 관습에 파묻혀 사유하지 않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계속해서 의미를 탐구하고 검토하며 의심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LM, 61). 이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 있다.

사유는 사유 활동에 의해 새로운 사유를 생성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유 과정에서 얻은 사유 대상이나 사유 사물을 다시 사유하는 것이다(LM, 675). 이 과정은 내가 사용하는 단어나 법칙들로 인하여 응축된 사고(frozen thought)를 풀어내는 해빙하기(unfreezing)를 오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박은주, 2020a; 100).

사유를 자극하는 것은 의미를 끊임없이 검토하려는 반복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반복은 의미를 해체시키고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물을 보더라도 의미가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 즉, 거듭된 사유 활동은 기존의 개념을 파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사회의 공통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것처럼,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해당 사회나 문화체계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김재춘, 2019: 207). 이러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과 내용은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 중심과 관련한 가르침이 주가 된다. 그러나 사유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교과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교과 내용의 특성 때문에 사유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사유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 영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상이나 증명된 사실을 해체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공부(study)”<sup>2)</sup>하기가 요청된다(Masschelein & Simons, 2015: 62). 공부는 전문지식이나 과학적 결과 생성과는 별개로, 주어진 교육 내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대상의 규칙을 발견하고 해체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것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수행하는 식의 인식에 기반한 교육과 구별되는 다른 층위의 활동이다. 측정 가능한 결과를 생산해 내는 활동과는 별도로, 범주를 넘어 사유할 수 있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결코 진부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은 아이들에게 세계를 이해할 시간, 즉 하던 일을 멈추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5. 결론

현대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고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은 현재의 교육 체계에서 주로 취업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강조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에는 공동체 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품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이히만의 사례는 개인의 관심사나 목표가 주어진 가치나 틀에 집중되면 사고력이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 그의 관심사는 조직에서 부여한 가치들을 달성하는 것에 있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상황에 대처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집중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사고하려는 경향과 비슷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아렌트의 사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에서 사유의 중요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아렌트의 사유 개념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와 사유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체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지식의 한계를 넘어 사유하고, 사유를 통해 지식 이상의 것을 이해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교

2) 마스켈라인과 시몬스는 『스콜라стик 교육- 학교를변론하다』(2015)에서 학교는 사회와 가정의 중간지대로서, 학교와 교사가 아이들에게 세계를 독특한 관점으로 열어보이고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하고 집중하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학생을 “견습생(apprentice)”으로 보고, 가정과 사회 영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상을 해체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공부(study)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62-64).

육은 단순히 취업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와 사유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정보를 습득하는 학습 활동을 넘어 사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김선옥, 「한나 아렌트에 있어서 말과 판단의 보편성 문제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중심으로 -」, 『철학연구』 99권, 대한철학회, 2006, 59-78쪽.
- 김선옥, 「근본악과 평범한 악 개념 - 악 개념의 정치철학적 지평」, 『사회와 철학』 13호,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7, 31-50쪽.
- 김선옥, 『한나 아렌트 생각』, 한길사, 2017.
- 김선옥, 『한나 아렌트와 차 한잔』, 한길사, 2021.
- 김재춘, 『세 가지 관점으로 본 교육과정 이야기』, 교육과학사, 2021.
- 박은주, 「한나 아렌트의 ‘사유’(thinking) 개념 탐색」, 『교육사상연구』 34권 1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20a, 85-112쪽.
- 박은주, 「아렌트(H. Arendt),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드러난 사유와 도덕의 관련성의 교육적 의미」, 『교육문화연구』 26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b, 1129-1149쪽.
- 조나영, 「한나 아렌트(H. Arendt)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한국여성신학』 84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2016, 189-196쪽.
- 조나영, 「아렌트 ‘이해(understanding)’개념의 교육적 의미 고찰」, 『교육철학연구』 42권 3호, 한국교육철학학회, 2020, 179-205쪽.
- Arendt, H.,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1958.
- Arendt, H., *Eichmann in Jerusalem*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서울: 한길사), 1963.
- Arendt, H., *The Life of the Mind*. (홍원표 역, 『정신의 삶』, 서울: 푸른숲.), 1978.
- Arendt, H., *The last interview and other conversations. Eichman Was Outrageously Stupid* New York: Melville House Publishing, (윤철희 역, 『한나 아렌트의 말: 정치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 서울: 마음산책), 2013.
- Bernstein, R., *Why Read Hannah Arendt Now?* New York: Polity. (김선옥 역,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서울: 한길사), 2018.
- Jean-Francois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 Minuit. (유정완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서울), 1979.
- Masschelein, J. & Simons, M., *Scholastics education*. (윤선인 역, 『스콜라стик 교육, 학교를 변론하다』, 서울: 살림터), 2015.
- Swift, S., *Hannah Arendt*, (이부순 역, (스토리텔링) 한나 아렌트』, 서울: 엘피), 2009.

## 「한나 아렌트 ‘사유’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에 대한 논평문

조선대학교, 서정자

사유는 과학과 같이 지식을 주지 않는다.  
사유는 유용한 실천적 지혜를 낳지 않는다.  
사유는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지 않는다.  
사유는 우리에게 행동할 힘을 직접 부여하지 않는다.<sup>1)</sup>

한나 아렌트는 미완의 저작인 『정신의 삶』 1권 사유의 서론을 하이데거를 인용하며 위와 같이 시작합니다. ‘사유하는 인간’에 대한 기대와 통념을 부정하는 하이데거와 아렌트의 명제 앞에서 우리는 아렌트에게 ‘사유’는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서초이 선생님(이하 ‘논자’)의 「한나 아렌트 ‘사유’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은 위와 같은 아렌트의 ‘사유’ 개념이 가진 독특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렌트 사상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사유와 교육의 의미를 탐구하는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논자는 아렌트의 사유 개념을 밝히기 위해 2장에서 아이히만을 중심으로 악의 평범성과 무사유에 대해 고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아렌트가 사유하는 인간의 본보기로 삼는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사유의 특징을 도출해 냅니다. 4장에서는 아렌트 사유 개념의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내고,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논자의 입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유하지 않는 인간의 전형인 아이히만과 사유하는 인간의 전형인 소크라테스의 차이가 사유의 유무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입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와 아이히만이 살았던 시대는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의 조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아이히만의 차이가 사유의 유무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들을 더 살펴봐야 할지 여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유와 악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2장이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을 중심으로 무사유의 세 가지 특징을 포착해내는 반면 3장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사유를 의미 탐구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히만의 무사유가 악의 평범성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때, 반대로 소크라테스의 사유는 선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아렌트는 “개인의 인격적 자질은 바로 그의 ‘도덕적’ 자질이다.”<sup>2)</sup>라고 주장하면서 인격성과 도덕성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렌트의 사유와 도덕 또는 선과 악이 맺는 관계가 궁금합니다.

1) 한나 아렌트, 『정신의 삶』, 홍원표 옮김, 푸른숲, 2019, 45쪽.

2) 한나 아렌트, 『책임과 판단』, 서유경 옮김, 필로소픽, 2022, 171쪽.

세 번째 질문은 교육적 시사점에 대한 것입니다. 4장에서 아렌트의 사유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끊임없이 검토하려는 반복적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렌트는 「교육의 위기」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현대 세계 속 교육의 문제는, 교육이 그것의 바로 그 본질상 권위 또는 전통을 저버릴 수 없는 반면에 권위에 의해서 구조화된 것도 아닌, 전통에 의해서 함께 묶인 것도 아닌 어떤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sup>3)</sup> 이렇게 볼 때 교육이 기존 세계의 권위와 전통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철학과 교육의 관계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깊이 있는 사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서초이 선생님과 목원대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3) 한나 아렌트, 『과거와 미래 사이』, 서유경 옮김, 한길사, 2023, 356쪽.

**나의 교양을 자산으로  
: WEB3 시대의 자산화 역량**

LK브라더스, 이상연



도안을 보호하는 스카치 플라타 프로젝트

# WEB3 시대 창작활동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 일상 = 기록 = 인증



- Approved of KRI
- Record Attempt
- Latest KRI
- KRI News
- Online Office
- Bulletin board

Home > Approved of KRI > KRI 공식기록

Approved of KRI KRI 공식기록

최다 자격증 취득			
기록보유자	이상연	연종일	2018-08-13
장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기록명	최다 자격증 취득

최다 자격증 취득 인증

||

나만의 브랜드



최다 자격증 취득 사진  
이상연님께서는 1998년 8월 13일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국가자격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자격 총 100개를 취득하였다.



# 국방일보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제15889호 1면 1964년 11월 16일 창간

KOOKBANG.DEMA.KR

단기 4353년 (윤력 4월 20일)

## 피아 장비 수초 내 식별... 명칭·제원 퍼센트 단위 정확도 제시 감시·정찰 작전 ‘국방시’ 가능성 보여주다

육군 ‘군사장비 이미지 식별 인공지능 플랫폼’ 자체 개발·시연

오픈소스 기반 개발 5개월여 만에 성공  
군사과학기술병 제도 가시적 성과 주목  
첨단과학기술군 도약 발전방안 논의도

육군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사장비 이미지 식별 AI 플랫폼(I-D3P: I-Army2030 Data Pre-Process Program)’을 자체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사장비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어떤 장비인지 식별해 장비 이름과 제원 등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군사장비는 전자·장갑차 위주로 약 40여 종이다. 아직은 추가적인 AI 학습이 요구되는 초기 개발 단계라 할 수 있지만, 군이 외부기관 도움 없이 실용적인 군사 AI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국방 빅데이터 및 AI 기술 발전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육군이 2018년 신설한 ‘군사과학기술병’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I-D3P 개발의 주역은 육군 교육사령부 AI 연구발전처 이상연(소령) 방호 개념발전정교와 석사급 군사과학기술병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I-D3P 개발에 착수해 5개월여 만에 개발 및 시연까지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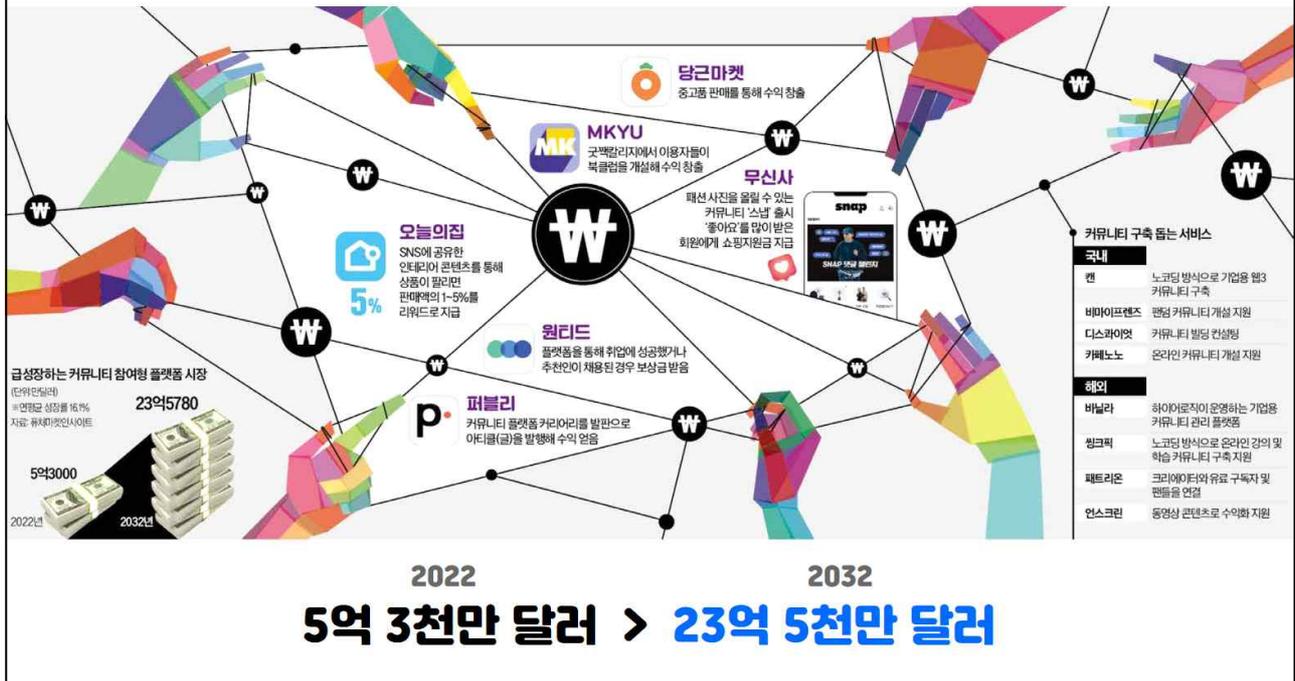
지난 8일 열린 ‘20-1차 육군과학기술위원회’ 참석자들이 주제발표 및 토의를 마치고 교육사령부에서 자체 개발한 ‘군사장비 이미지 식별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육군 제공

# AI 학습용 데이터 = 돈이 되는 시대

# What's WEB3?

**탈중앙화 및 분산,  
이용자 개개인의 콘텐츠 소유권 확대와  
의사 결정 공동 참여,  
지능화와 개인화를 키워드로 하는 웹 기술**

## 커뮤니티 참여형 비즈니스



**그렇다면**

**누구나 그리는 그림(도안)을 가지고  
가치(수익)를 만들수는 없을까?**

**그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하는 방법의 한 수단, 그림**

# 역사 속에서의 기록



라스코동굴 벽화



고구려 무용총 무용도

## What's 도안?

**미술 작품을 만들 때의  
형상, 모양, 색채, 배치, 조명 따위에  
관하여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그림으로 설계하여 나타낸 것!**

## 이것도 다 도안이야?



드로잉



페인팅



그래피티



캘리그래피



네일아트



타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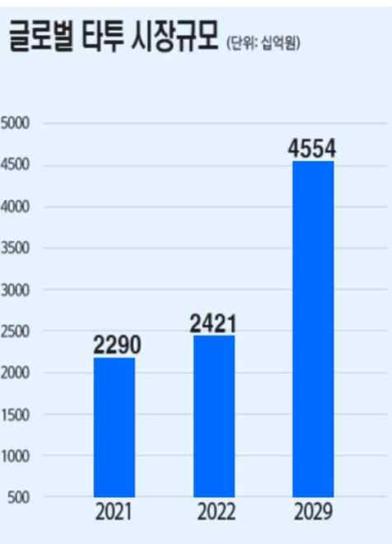


두들(낙서)



포토그래피

## 타투 시장 규모



[자료=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 한국타투협회/그래픽=강윤주 기자]

글로벌 타투(문신) 시장 규모가 **2021년 17억**

**달러(약 2조2900억 원)**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포춘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지난달 7일(현지시간) 발간한 국제 타투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타투 시장 규모는 **약 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 타투 시장

연평균 성장률(CAGR)은 9.43%를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되며 **2029년에는 시장 규모가 35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타투 프린터

1초타투는 처음이지?  
**지워지니까  
걱정마!**



타투 프린터의 **도안**은 모두 **창작자, 참여자**가 만든 작품

**도안 데이터 = 돈이 되는 시대**

**창작 활동 = 돈이 되는 시대**

## SNS 도안 판매 사례



? 원

판매자 :

판매경로 :

판매가 :

구매자 :

## SNS 도안 판매 사례



150,000원

판매자 : 중문과 2학년 대학생 신00(미술 비전공자)

판매경로 : 취미형 도안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

판매가 : 150,000원

구매자 : 타투이스트 (소유권이 아닌 1회 사용권 요구)

# SNS 도안 판매 한계

인스타그램 = 홍보 효과 ▲

하지만, 도용의 가능성 ▲

## 도안 도용 사례

도안 도용에 대한 무지함과 예술 선진 문화의 부재



**도용 예방 = 원천적으로 불가**  
**하지만 적어도 도용분쟁시**  
**내 창작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 저작권 비즈니스

음원

musicUw  
genie Melon VS  
YouTube Music  
Apple MUSIC

도안



**회가는 죽어야 작품 값이 오른다?**

# 파블로 피카소

3세부터 92세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린 피카소



내 그림들 어디갔누..?

1만 3,500여 점의 그림 > 모든 작품이 잘 보존되었을까?

#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빈치’의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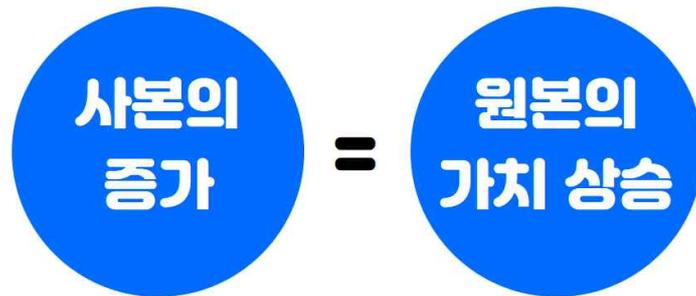


뉴욕 타임즈



Le Petit Parisien (1876-1944 발행)

도난 사건 > 미디어를 통한 복제(프랑스, 유럽, 미국) > 유명세



**단, 원본의 인 증은 필수**

**탈중앙화 기반 창작자,  
참여자 스스로가  
가치를 만들고 지키는 환경**

**NFT = 대체 불가 토큰**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그림의  
원본 소유자를 확인 가능**

**프로젝트 개요**

**< 스카치 플라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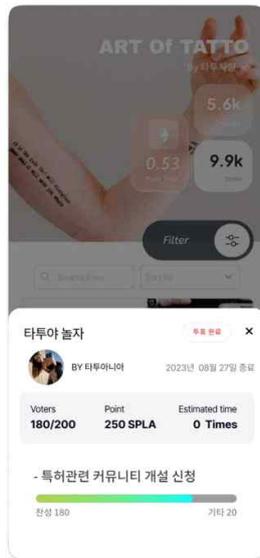
**D-NFT + DAO + AI**

**WEB3 기반 창작 활동 소통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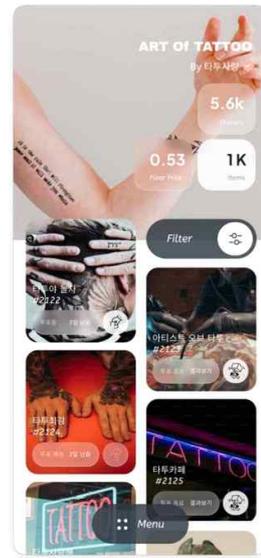
# TISSUE 플랫폼



**D-NFT**  
도안 등록



**DAO**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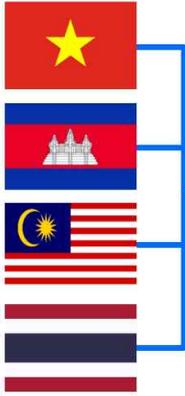


**AI**  
도안 보호



# Global Community 구축

Southeast Asia Chain



Asia Chain



USA, Europe Chain



## < TISSUE >

마음껏 **창작**하자!

**도안 데이터**는 재산과 같다

나만의 지식 재산을 **지키**자!

**앞으로**  
**WEB3 기반 창작 활동**  
**저작권 보호 문화 양성**  
**창작 활동을 위한**  
**신규 커뮤니티 구축 및 환경 지원**



서울 홍대 커뮤니티 활동



서울 강남 커뮤니티 활동



서울 역삼 KNC 커뮤니티 활동



경남 거제 커뮤니티 활동



서울 역삼 KNC 커뮤니티 활동



세종 파크 뮤직 페스티벌 TAF 행사



세종 파크 뮤직 페스티벌 TAF 행사



2023 한국문신전 행사



2024 한성대 한디원 연합 MT 특강



IDAC, 우수디지털자산인증 및 디지털자산 리더상 수상



두바이, GLOBAL BLOCKCHAIN SHOW 행사



두바이, TOKEN 2049 행사



북경, ONC 그룹 및 VN.COM 초청 미팅

**일상을 기록하고 지키자**

**See You Again!**

**Q & A**

**감사합니다**



## 「WEB3 시대 창작활동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 도안을 보호하는 스카치 프로젝트」에 대한 논평문

전주교육대학교, 정옥희

Web 3.0은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인터넷 상의 데이터 소유권과 제어를 분산시키는 기술로 이 기술은 그동안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던 중앙 집중식 방식에서 데이터를 최종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고 데이터의 가격을 결정하여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주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사용자의 상호 작용 방식을 자동으로 규제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이 기존의 데이터 운용 방식과 차별화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판매하고 분산형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배포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 Web 3.0 기술은 커뮤니티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가 만든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괄목할 만한 발전인 듯합니다(인용 출처: <https://aws.amazon.com/ko/what-is/web3/>).

이 발표에서 발표자님은 미술작품을 만들 때의 형상, 모양, 색채, 배치, 조명 따위에 관하여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그림으로 설계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창작활동으로서의 도안은 드로잉, 페인팅, 그래피티, 캘리그래피, 네일아트, 두들(낙서), 타투, 포토그래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와 사업 등에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하나의 창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Web 3.0 기술은 창작된 도안들을 데이터화되고 이 데이터를 분산형 네트워크에 분산함으로써 저작권을 가지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기록의 한 형태로서의 그림들은 특정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누구나 도안(그림)을 가지고 SNS를 통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자신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작자의 입장에서 창작물의 도용 문제와 저작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이 노출되어있는 창작물로서 도안에 대한 저작권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발표에서 보여주신 Web 3.0 기술을 기반으로 기획한 도안을 보호하는 스카치 프로젝트는 미술 창작자와 미술 시장 및 상업 미술가들에게 매우 반가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술 창작물으로써 ‘타투’ 도안의 원본은 지속적으로 복제되고 확장되는 가운데, 블록체인상에서의 디지털 그림이 원본을 인증하고, 도안을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하고 저장하여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재산과 같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창작자로서 매우 반가운 기술적 성과로 보입니다.

아직은 블록체인, 챗GPT, NFT를 비롯하여 Web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미술교육자로서 저는 발표자님의 원고를 통해서 몇 가지 이해되지 못한 부분과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에서의 모든 상호 작용은 서비스 교환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고 소비할 수 있지만, 정작 중앙 서드 파티 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데 어떤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러한 Web 3.0 구현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분산형 시스템에서의 거

버전스가 어려우므로 커뮤니티 참여가 필요하고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지 않는 효과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를 의미합니까?

셋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Web 3.0 커뮤니티 내의 협업, 혁신 및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스카치 Web 3.0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는데 타투 앱 혹은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커뮤니티 협업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창작표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미술교육의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데이터화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배포하며 재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내용과 기술이 추가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작자와 참여자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협업을 위해 어떤 측면이 교육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하는지 발표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그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는 미술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발표문은 요즘과 같은 디지털 WEB 기반 기술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도안이 재산과도 같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어하며, 디지털 자산으로 소유함으로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자신의 창작활동을 유지하기 힘든 미술 전공자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업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Web 3.0 기술로 분산형 네트워크는 참여자와 창작자, 창작자 간, 참여자 간, 창작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술로 창작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창작물을 데이터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의 도래는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고, 더불어 규제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은 미술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 되기  
: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걸



#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 되기 :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걸

##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군사독재체제를 거쳐 민주화를 이루었다.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은 무자비한 방식으로 민주화 운동의 싹을 도려내려 했으나, 민주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은 두려움 없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일반 국민이 수립한 글자 뜻 그대로의 1993년 문민정부(文民政府) 이래로 약 30여 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가 전부인 대한민국은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99년 G20에 가입하고, 2021년에는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다.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제무대에서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명실공히 다른 선진·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를 선도(先導)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정도가 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을 강제하며 이뤄진 근시안적 ‘국민국가교육’의 강화는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바깥 세계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향을 통해 주권을 되찾은 국민은 자유와 평등, 기본적 이익을 보장·보호받으면서 경제적 풍요를 견인한 것은 물론,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하고, 최대한으로 대안적 행동 노선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들을 생각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고려”<sup>1)</sup>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가진 속성이 충분히 계발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자의 이익을 배려하고, 중요한 결정에 책임을 지고, 최선의 결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범위”<sup>2)</sup>를 확장시켜 개인과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해준다.<sup>3)</sup>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획득한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열린 공론장에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광대한 통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거친 20세기 비약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정보의 실시간 교환과 인적·물적 교류의 시간적 축약을 가져왔다. 국민국가의 기반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으로, 이는 상대성을 고집해선 안 되고 보편성에 맞춰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국가의 시민이 갖는 특정한·고유한 문화 속 행위는 세계시민에게 다양하게 비칠 수 있다. 따라서 내 행위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항시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인류 공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세계시민은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1) 로버트 A. 달, 김왕식·장동진·정상화·이기호 譯, 『민주주의』, 동명사, 1999, p. 82.

2) 위의 책, p. 82.

3) 물론,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자본주의에 우선권을 내주어 평등과 자유의 향유 집단을 양적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우위의 세력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균열·괴리를 만들고 이를 고착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고는 민주주의의 일반론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행위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적인 도덕 판단은 우리가 말 그대로의 이웃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도 느끼라고 요구하고 있다.”<sup>4)</sup>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합리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sup>5)</sup> 합리성의 요건은 무엇이든 보편적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고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sup>6)</sup> 이성적 행위자는 인격을 가진 대상을 상대적 가치만을 지닌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칸트의 이 두 가지 정언명령을 따르기만 해도 세계시민주의의 기초적 덕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을, 자기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여기는 것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탄생에 따른 일체의 소속감을 벗어던지게 하는 세계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국적적이고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자기(인간)에 대한 사유를 심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자기)은 세계의 시민이자 동시에 세계의 이방인이라는 이중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는 국내·외적인 문제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인간 개체가 자기가 속한 어느 한 국가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직면해 있지 않고 세계 전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는 인류의 문명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에너지 위기, 전쟁, 무역 불균형, 빈부 격차 등등. 인류 전체를 문명 이전 야만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결코 몇몇 국민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종말의 징후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로 팔짱을 낀 채 구경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없다면 ‘나’도 ‘우리’도 ‘미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시대적 사명으로 받들든지, 세계의 이방인으로서 시대의 운명이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약관화해 보인다.

## II. 추방·축출될 존재로서 인간

인간은 세계(지구)에 속한다.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이성에 의한 관념적 조화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자기 안에 세계와의 관계를 설립한다. 그러나 인간은 세계 안 자신의 가치와 지위를 확신하는 경우에만 자신을 자유롭게 정연(整然)화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세계에 대한 사유는 인간을 세계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떼어 두지 못한다. 인간은 세계 안에서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되는 설명을 발견한다. 이것은 세계를 상기시켜 주는 신이 인간 내면에 있다는 설명과 다름없는데, 인간은 이성의 원리에 따라 신을 안다. 이것은 신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는 절대 무방비 상태로 홀로 있지 않다.<sup>7)</sup>

4) 콰메 앤터니 애피아, 실천철학연구회 옮김, 『세계시민주의』, 바이북스, 2009, p. 272.

5)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12, p. 370.

6)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4, p. 148.

7) “우리는 신적 통치 질서와 자신과 다른 것들과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현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도 치유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것들 중에서 완성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들에 내재된 이성의 원리에 따라 완성해야만 한다.”, 에픽테토스, 김재홍 옮김, 『에픽테토스 강

세계 안(內) 인간의 탁월한 지위에서 인간의 독립성을 보증하는 두 가지 도덕적 결론이 도출된다. 도덕적 숭고함과 자급자족의 행복을 스스로 요청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존중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고귀한 사유를 가질 수 있고 세계 안에서 안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숭고함과 안전은 출생·전통적인 사회적 지위·사건의 우연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따라서 각자의 자유로운 태도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 이것은 따라서 세계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대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을 수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계와의 관계는 따라서 도덕적 요구와 이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다. 인간은 규범에 맞는 사유와 행위를 통해 세계의 긍정적 전망에 참여하면서 안전하게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세계를 느낀다.

“모든 소유의 조건인 거처는 내재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 자아는 이런 식으로 자기 집에 머문다.”<sup>8)</sup>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은 세계의 전유가 가져다주는 자신감과 안전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세계를 부정하고 거부하도록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 관한 정치적 사유에서 전쟁과 망명, 고립(독)의 상처받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여지와 일련의 정치적 용어의 변화를 이해한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서의 고립(독)은 세계와의 유대를 확신하며 혼자 존재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동행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안전과 신뢰를 추구하면서 소외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고유하다. 그러나 인간은 세계와의 내적 관계에서만 안전과 신뢰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에 뿌리내린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에서 파생된 평온함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 양면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인간이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다고 믿는 것은 오만하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이 전체 안에서 종속과 통합을 사유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동류(同類)와 연결되는 것을 안다면, 행복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고립(독)에 대한, 상처받을 수 있음에 대한 사유는 바뀐다. 이 사유는 적절한 사유를 갖지 못하는 데 있고,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실제로 무지(無知)와 두려움에 의해 세계와 분리되고, 동시에 세계와 자기로부터 고립되고 낮설게 된다.

전쟁에선 개인의 상처받을 수 있음의 결과만이 고려된다. 이것은 끊임없는 불안의 감정을 유지하고 세계 내 존재를 방해하는 무질서한 상태이다. 전쟁은 사실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고려되기보다 사적이고 열정적이며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여겨져야 한다. 전쟁은 인간성의 부당한 분열에 연관되지 않고 불가피한 인간의 야망에 연관된다. 전쟁은 사물·환경이 나의 향유를 위해서만 전유되어야 하는 데에 따르는 발로이다. 열정, 잘못된 판단,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무지(無知), 우리의 독립에 대한 무지, 존재하는 것의 수용 거부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사소한 사건에 휘둘리게 하면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여 상처받기 쉽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삶의 각 상황은 강제로 부과되는 킬러 문항으로 가득한 시험처럼, 우리의 자유와 세계 안 우리의 지위에 대한 지난하고 골치 아픈 투쟁의 연속일 것이다. 진정한 세계주의는 궁극적으로 자신과의 내적·도덕적 관계를 거쳐야만 이룩할 수 있다.

추방은 항상 소속된 전체,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되고 익숙한 인간의 틀 - 장소와 삶의 양상, 우호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등 - 을 깨뜨리면서 인간을 노출시킨다. 광의의 의미로, 추방은 세계와의 통상적인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뒤집어엎는 모든 변화를 나타낸다. 모든 인간이 겪는

의 3·4』, 그린비, 2023, p. 93. 세계시민주의는 기원전 3세기 스토아학파에 의해 수용되고 발전된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인 에픽테토스를 참조할 수 있다.

8) Emmanuel Levinas, *Totalité et Infini : Essai sur l'extériorité*, Le Livre de Poche, 2009, p. 139.

단절과 상실에 직면한 낯섦의 감정에, 동일자의 영원한 회귀와 인간 경험의 동질성 - 장소와 사람, 관습 등에 대한 맹목적 순종 - 을 인지할 수 있는 규범의 인식은 따라서 개선되어야 한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이 복종의 파기가 여전히 일반적 질서 안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추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운명의 표지다. 우리 삶과 세계의 연속성 안에서 파기를 당연시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세계 안의 평안을 최대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말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선 변화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추방과 모든 상실은 불가피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별개이고 떨어져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가 세계 안 '나의 자리'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세계는 "공통의 기반이나 땅, 소유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 "모든 관계 혹은 모든 소유는 포함하거나 포함 시키는 소유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위치한다."<sup>9)</sup> 소유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요소적인 것(l'élémental)이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요소적인 것으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운명이다.

추방은 이중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두려움에 빠지는 유일한 추방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세계 일반적으로부터 그리고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무지와 거부에 의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축출되는 것이다. 이중적 재정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생전의 유배 생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최종적인 '나의 집'을 찾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추방을 수용하면 추방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일반적인 수용은 각각의 단일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되돌아가야만 할 것을 알기에 인생이라는 여정의 각 단계를 향유할 수도, 뜻밖의 사건과 대혼란에 의해 추방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멈출 수도 있다.

추방과 시민권을 세계와의 동일한 관계의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람·사건·장소·도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고려하는 것이다. 인간이 세계의 시민이라면, 그의 정체성, 그의 임무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방에도 불구하고 추방에 반(反)해, 추방에 의해 끊임없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 Ⅲ. 추방의 위기 : 지구 온난화

지구(세계)는 현재 고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세계의 가용한 모든 자원은 동력(動力)을 얻기 위해 꾸준히 그리고 가속적으로 불태워지고 있다. 지구는 실 틈 없이 불이 때워지는 거대한 용광로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열(온도)을 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수백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를 방해한다. 산업화 이후 대량 생산·대량 소비 사회는 지구 위 삼림의 절반을 사라지게 했고, 야생생물의 2/3 이상을 멸종시켰다. 지구 역사상 인류 탄생 이전 5번의 대멸종은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빙하기 도래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도래할 6번째 멸종은 인간에 의한 것으로 예기된다. "지구 시스템에 남긴 인간의 흔적은 대단히 광범위해 풍화, 화산활동, 운석 충돌, 섭입, 태양의 활동과 같은 물리적 힘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자연의 힘에 영향력을 미친다. (...) 바로 의지의 작용"<sup>10)</sup>이다. "인간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과 같은 사건에 필적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대략 10,000

9) 위의 책, p. 138.

10) 클라이브 해밀턴, 정서진 옮김, 『인류세』, 이상복스, 2020, p. 23.

년 전에 시작된 ‘홀로세(Holocene)’라는 지질학적 시대구분을 끝낼 정도가 되었다 (...) 인간 활동이 지구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sup>11)</sup>

특히, 인간의 경제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하여 균열을 심화시켰다. 이로부터 ‘인류세’<sup>12)</sup>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그리고 이 ‘인류세’에 우리는 인간의 종말을 목도하는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지질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인류세의 정점에 도달했고, 지구는 인류의 자원 남용과 환경 파괴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다는 첫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인류세가 시작된 지 불과 70년 만에 지구 시스템이 회복 탄력성을 잃고 있으며, 우리가 가하는 압박과 스트레스, 오염을 완충하고 완화하는 생물물리학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sup>13)</sup>

전 세계 195개국 이 모인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 C 이내로 유지하기를 약속한 것이다. 1.5° C는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이 1.5° C “마지노선은 깨졌다.”<sup>14)</sup> 유럽연합(EU)의 기후 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2023년 2월~2024년 1월, 이 기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 C 오른 것을 관측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C 상승하게 되면, 산호초나 호주 열대우림 같은 생태계들이 회복 불능에 빠지고 석회질 성분의 해양 생물은 멸종한다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보고서가 있고, 생물 다양성의 절반가량이 자칫 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라고 96%의 생물학자가 투표했다고도 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이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초래된다, 2024년 4월 21일 422.04ppm의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한 달 전 421.80ppm보다 0.24ppm 증가했다.<sup>15)</sup> 이런 추세라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0년 이내에 450ppm에 달할 수 있다. 450ppm을 넘겨둔 상황과 2° C 상승을 0.48° C 넘겨둔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 및 기후 재난 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장장 10개월 동안 이어졌고, 2023년 봄 캐나다에서 일어난 산불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이었으며, 2024년 2월 미국 텍사스의 산불은 서울 면적의 7배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태평양의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점차 가라앉고 있다.<sup>16)</sup>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수상도시인 베네치아도 100년 이내 물에 담긴다고 한다. 시리아 내전의 주요 원인은 오랜 가뭄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 전 세계는 최근 들어 거의 예외 없이 매해 여름 지금까지 관측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갱

11) 시노하라 마사타케, 조성환·이우진·야규 마코토, 허남진 옮김, 『인류세의 철학 : 사변적 실재론 이후의 ‘인간의 조건’』, p. 95.

12) 인류세(人類世 : antropocene)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처음 등장했지만, 파울 크뤼첸(Paul Jozef Crutzen, 1933~2021)이 2000년에 열린 국제 지권-생물권 계획(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 회의에서 ‘인류세’ 개념을 공론화시켰다. 그는 18세기 후반에 시작됐던 산업 혁명과 함께 활발해진 인류 활동에 의한 수권·기권·생물권의 환경이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하는 취지로 인류세를 홀로세 다음의 지질시대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홀로세와 구별되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인류세로 명명하자는 것이 ‘인류세’ 담론의 핵심이다.

13) 요한 록스트림, 「티핑 포인트와 되먹임 고리」, in 그레타 툰베리 외, 이순희 옮김, 『기후 책』, 김영사, 2023, p. 56.

14) 2024. 02. 08. YTN 뉴스. <https://v.daum.net/v/20240208233432891>

15) 2024. 04. 23. 한겨레신문, <아시아 기후재난 피해 가장 커...세계보다 빠른 온난화 속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7796.html>

16) 2023. 04. 26. 국민일보, <“우리의 섬은 가라앉는다” 사이바이섬 원주민의 편지> <https://v.daum.net/v/20230426000421196>

2024. 05. 23. 뉴스펄컨, <바다에 잠겨가는 투발루...전 국민 호주로 대이동?>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6>

신하고 있다. 우리나라(대한민국)의 경우 최근 봄이 한창인 2024년 5월 중순 강원도에 때아닌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졌었다. 5월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것은 22년 만의 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태풍·해일·허리케인·폭염·한파·호우·폭설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에만 관심을 두며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후순위로 미뤄 둔다. 왜냐하면, 비용을 치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소비 자본주의의 편의·편익은 인류세의 문제 타개를 위한 불편한 실천을 쉽게 포기·단념시켜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의 사람들은 미래의 과학 기술 발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sup>17)</sup> 하지만 이 같은 기술 낙관론은 치명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지구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다다랐다.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는 점(point)이다.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지구의 기후 변화는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커다란 바위처럼 급전직하하는 모습으로 견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생물물리학적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되먹임이 강화되어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그러나 불가피하게 새로운 상태로 이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환경과 생계에 충격을 가한다.”<sup>18)</sup> 지구 시스템의 기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간과 지구(자연)의 동역학 관계는 역전된 셈이다.

우리는 “금세기 동안 인간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고향 행성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저하시킬 것이라는 현실적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sup>19)</sup> 인간이 저지른 만행(蠻行)은 동물·식물은 물론 인간마저도 지구(세계)에서 추방·축출·배제시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인류는 지구의 공기, 빛, 물, 경치, 먹거리 등으로 삶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지구의 이 요소들이 이제 ‘나’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이익·탐욕에 착취당한 지구(세계)는 더 이상 인간의 뜻에 부응하지 않고 야만성을 드러내며 이익·탐욕에 눈먼 인간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인간은 종(種)의 우월성, 특권의식을 들어 지구(세계)에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능력만 휘두른 인간은 “무기를 가진 자에게 해를 끼치는 무기”<sup>20)</sup>를 사용한 셈이다. 따라서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세계적인 유명 패션 브랜드의 패션쇼장 앞에서 “NO FASHION ON A DEAD PLANET(지구가 죽으면 패션도 없다)”<sup>21)</sup>이란 구호로 패션쇼 반대 시위가 있었던 적이 있다. 지구가 죽으면 패션을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지구환경을 끊임없이 다양한 상품화로 소비했던 인류는 지구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다. 기후 변화는 분명 인간 소멸 문제와 관계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변화시켜 온건한 기후 변화 속 지구(세계)에 남을 것인지, 지금까지 해 온 방식(경시·파

17) “에코모더니스트에게 인류세는 인간의 오만이 낳은 위험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자연을 개조하고 제어하는 인류의 능력에 대한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클라이브 해밀턴, 정서진 옮김, 『인류세』, op. cit., p. 48.

18) 요한 록스트림, 「티핑 포인트와 되먹임 고리」, in op. cit., p. 60.

19) 클라이브 해밀턴, 정서진 옮김, 『인류세』, op. cit., p. 23.

20) Emmanuel Levinas, *Totalité et Infini : Essai sur l'extériorité*, Le Livre de Poche, 2009, p. 6.

21)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옷이 대략 1000억 벌이고, 이 중에서 330억 벌이 버려진다. 패션 산업의 재료, 물, 화학물질, 에너지 사용은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흰색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옷 염색 과정에서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옷 세탁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한다.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로, 이는 전 세계의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고, 전 세계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다. 2021년 7월 1일 KBS 방송, <오늘 당신이 버린 옷, 어디로 갔을까>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gw5PdqOiodU&t=32s>

과·소거)으로 불확실하고 격렬한 기후 변화 속 지구(세계)에서 추방·축출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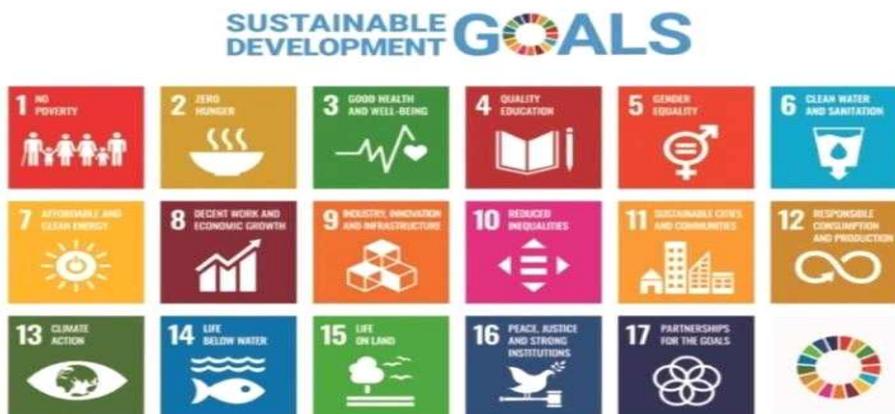
#### IV.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지구환경 교육의 필요성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up>22)</sup>는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함께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을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제사회 최대의 공동목표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17개의 목표 중 물관리(목표 6), 친환경 에너지 생산(목표 7), 기후 변화 대응(목표 13), 해양생태계 보전(목표 14), 육지생태계 보전(목표 15)은 지구환경과 관련한 직접적인 목표에 해당한다. 나머지 목표들 역시 간접적으로는 지구환경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는 농작물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식량 위기를 초래하여 빈곤(목표 1)과 기아(목표 2), 건강(목표 3), 분쟁 문제를 일으키고 부의 불평등(목표 10)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이처럼 기후 변화·위기는 인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깨닫고 닥쳐올 기후 위기 상황을 더디 늦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최대 200년 가까이 머문다.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삶의 환경을 결정짓는 셈인데, “깨끗한 물과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계, 문화유산, 여가 활동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 세대가 당연히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마땅한 최소한의 유산이다.”<sup>23)</sup>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한 결정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세대는 현세대의 파괴행위로 땅가뜨린 지구(세계)를 책임지지 않은 채 미래 세대에겐 전가하려 한다. 이 ‘책임 전가’는 선진국(민)에서 후진국(민)으로 동시대적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일찍이 산업 혁명을 통해 축적한 부를 가진 선진국(민)은 주변국의 자원을 헐값에 매입·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담 전부를 주변국에 전가하고 있다. “어딘가 먼 곳’의 사람과 자연환경에

22)



23) 마이클 테일러, 「해수면 상승과 작음 섬들」, in 그레타 툰베리 외, 이순희 옮김, 『기후 책』, op. cit., p. 221.

부담을 전가하고 그 진정한 비용은 떼어먹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생활의 전제 조건이다.”<sup>24)</sup> 즉, ‘나’의 부족할 것 없는 일상의 삶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다.

기후 격변에 의한 전 지구적 위기의 책임을 희생자에게도 균일하게 강제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신이 주어지면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에 일관되는 최선의 방식으로 최소 수혜자들의 관점을 가려내어 그들의 장기적인 전망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sup>25)</sup> 따라서 “가장 혹사당하고 가장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비상사태에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활동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형평성이 개선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할 기회가 열린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sup>26)</sup>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세계 상위 10% 부국(민)이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안다면, 온실가스 배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나 자란 조국이 가라앉는 지경의 국가(민)들에, 전통적인 농·수산업의 종사가 사회 인프라 부실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겪는 국가(민)들에 균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기후 부정의(Climate injustice)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는 인류에게 마찬가지로 미치지만, 그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따라서 기후 부정의는 세계시민 모두의 공동 노력의 합세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후 변화는 현재 인류 공동의 관심사로서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선진국의 탄소배출 이력을 통해 본다면, 선진국은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공정의 원칙과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각각의 역량(capability)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후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와 부작용과 맞서 싸우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제3조 1항>

복잡다단한 국민국가의 이해에 따라,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이미 시작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저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 논쟁의 주체로 참여하여 “기후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기후 역량이지만, 기성세대로 인해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 세대에게 더욱 필요한 역량이다.<sup>27)</sup> 따라서 이 역량이 길러지고 키워지고 발휘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은 기후 변화의 과학적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적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추구해야 할 입장에 대해, 기후 위기의 완화를 위해 다양한 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입장과 과학 기술의 채택 및 정책에 관해서는 다양한 가치관에 의해 여러 입장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논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sup>28)</sup> 예를 들어, 전격적 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소비재 생산과 소비는 불가부득 탄소배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과 발전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지 숙고해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상하다. 발전한다는 것은 도시를 확대하고 공장도 많이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자면 자원도 많이 쓰고, 자연으로부터 상당량의 물질을 채취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지속 가능할 수 있나? 지구가 점

24) 사이토 고헤이, 김영현 옮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다다서재, 2021, p. 32.

25)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12, p. 420.

26) 나오미 클라인, 「정의로운 전환」, in 그레타 툰베리 외, 이순희 옮김, 『기후 책』, op. cit., p. 496.

27)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15세의 나이로 ‘청소년 기후 행동’을 촉발시키며 전 세계 청소년들의 ‘결석시위’를 이끈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다.

2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주 구체적인 위협』, 동아시아, 2022, p. 183.

점 커지는 것도 아닌데 발전을 하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양극단의 두 개로 나누어 놓고 냉정하게 우리 사회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sup>29)</sup> 이 외에도 자연물의 법적 권리 인정, 원자력 발전소의 탄소배출 저감과 안전문제의 대립, 기술 낙관론의 오류, 전기차 보급률 확대 對 대중교통 긴밀 노선 추진, 기후 변화와 환경 난민, 메탄가스 배출 감축 농업 개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책임 할당 문제 등, 학습자는 이 같은 논쟁의 참여를 통해 기후 역량을 두텁게 키울 수 있다. 즉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고 조율하며 자신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푼아가는 과정으로 학습자는 기후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폭넓은 이해를 갖출 수 있다.

## V. 나가는 말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각국의 정부를 피고로 하는 법적 다툼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0여 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진행됐고 진행되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청소년 환경단체 19명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기후 헌법소원을 4년여 만인 2024년 5월 21일 1차에 이은 2차 공개 변론을 마쳤다.<sup>30)</sup>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1년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불충분하여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 세계가 SDGs와 같은 대책을 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탄소배출의 대규모 감축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우선하며 탄소배출 감소를 극적으로 성공시키지 못해 벌어진 현상이다. “육조에 물이 넘쳐흐르기 직전인데 양동이를 찾으러 가거나 바닥에 수건을 까는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가장 먼저 달려들어 수도꼭지부터 잠글 것이다. 만일 누군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그 사람은 사태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해야 할 일을 미룰 때 벌어질 결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sup>31)</sup>

기후 위기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 모색과 통시적·공시적 책임 전가, 지구가 여전히 과학 기술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는 믿음은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못하는 형국을 만들어 냈다.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여겨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부 환경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형국에 편승하여 TV 속 먼 나라 기후재난을 무심히 바라보며 아무런 대응 없이 일상을 살아낸다. 이제는 더 이상 기후에 대해 무관심함이 없이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어차피 미래는 파멸로 끝날 텐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피하려고 아등바등 할 이유가 없다는 무언의 확신을”<sup>32)</sup> 다지는 式의 냉소주의적 태도는 현재의 기후 위기를 타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관심의 만연, 위기의 외면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사회를 내맡기는

29) 위의 책, p. 186.

30) 2024.05.26. 노컷뉴스, <“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526093507](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526093507)

31) 그레타 툰베리, 「실패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in 그레타 툰베리 외, 이순희 옮김, 『기후 책』, op. cit., p. 256.

32) 나오미 클라인, 이순희 옮김,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 열린책들, 2021, p. 25.

셈이 된다. 이것은 방향성 잃은 자신의 운명을 더욱 개인의 고립된 삶 속으로 깊숙이 침잠시키는 꼴이다. 원자화된 자기중심적 태도는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희박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계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배제 시킨다.

기후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문제일 수 없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sup>33)</sup>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가 더 나은 체제를 지향하고 늘 개선하려는 방법을 찾는 한에서, 나는 연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나와 타자들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세계 시민 되기, 이것은 우리가 연대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번의 선택이 주변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sup>34)</sup> 나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행동이 될 것이다. 나의 가치와 행동을 우리 그리고 세계에 일치시켜나가면 한층 건강한 지구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선한 의지의 내 행동 변화는 내가 한 그만큼의 변화만 만들어 내지만, 공동체 속 선한 의지의 영향은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진짜 불행이 거의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sup>35)</sup>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3) 엘린 안나 라바, 「사프미의 겨울」, in 그레타 툰베리 외, 이순희 옮김, 『기후 책』, op. cit., p. 227.

34) 엘리스 존슨, 브렛 존슨, 로스 핸플러, 장상미 옮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안내서』, 동녘, 2012, p.

35) Emmanuel Levinas, *Les imprévus de l'histoire*, Le Livre de Poche, 2008, p. 185.

##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 되기 :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평문

대구대학교, 안효성

김영걸 선생님(이하 논자)의 「민주시민으로서 세계시민 되기: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은 보편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간이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글이다. 글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세계와의 내적 관계에서만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는데, 소위 인류세를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는 지구 환경을 급격히 파괴시킴으로써 지구(세계)로부터 추방될 위기에 빠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다. 인간은 이성적 윤리 행위자로서의 세계시민의 지위를 각성하여, 인간의 요람인 지구(세계)에 대한 극단적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후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의로운 전환’ 활동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활동은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형평성이 개선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가장 소외되고 혹사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지구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를 함축하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지구환경 교육’은 인간을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그 정체성은 자연스레 민주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논자의 논지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이해되며, 대체로 납득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류의 목전까지 다가온 심각한 기후 위기의 징후들을 모르지 않는 한, 인류가 가이아 어머니께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환경(기후 위기 대응) 교육이 긴요하며, 해당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고 세계시민은 동시에 민주시민으로 함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그럴 수 있을 때 인간은 지구로부터의 추방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는가? 물론 각론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그저 본 논평자는 글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 문장과 내용에 대한 질의 정도에서 논평을 수행코자 한다.

첫째, 논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획득한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열린 공론장에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광대한 통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화에 동참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취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실한가? 대한민국이 세계화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동력은 자본주의적 성취, 경제대국화, 그것도 신자유주의 경제체

제로의 선도적 편입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사실관계에 들어맞는 것은 아닐지?

둘째, 들어가는 말에서는 또한 “모든 인간을, 자기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여기는 것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탄생에 따른 일체의 소속감을 벗어던지게 하는 세계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국적적이고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자기(인간)에 대한 사유를 심화하는 것이다.”란 서술이 등장한다. 여기서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탄생에 따른 일체의 소속감을 벗어던지게 하는 세계”로 끊어 읽어야 하는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탄생에 따른 일체의 소속감을 벗어던지게 하는/ ‘세계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끊어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문장을 읽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논자의 의도가 궁금하다. 게다가 세계시민주의가 논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우리가 우연적 탄생으로 속하게 된 국지적 단위체에 대한 소속감을 버려야만 세계시민이 되는 것일까? 무국적적이고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자기(인간)에 대한 사유를 심화시켜야만 세계시민이 된다는 말인가?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거나 한가? 심지어는 ‘무국적적이고(‘무국적적’이란 표현보다는 ‘초국적’이란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보편적인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자기’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셋째, 들어가는 말의 후미에는 ‘세계의 시민’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세계의 이방인’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세계의 이방인’이란 무엇을 염두에 둔 개념인지 궁금하다. 세계의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못한 정치 없는 이방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세계의 바깥으로 밀려난 세계 외적 이방인을 의미하는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가?

넷째, 논자는 “인간은 세계(지구)에 속한다. 이것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다.<sup>1)</sup>”다시 말해, 인간은 이성에 의한 관념적 조화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자기 안에 세계와의 관계를 설립한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논자는 글에서 세계와 지구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성에 의한 관념적 조화를 세계에 널리 퍼뜨린다는 등의 진술이 가능하려면, 세계는 단순히 지구와 등치되지 않는 다른 개념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자의 논의 구조 내에서 세계와 지구의 개념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는 없겠는가? 그리고 위의 인용문에 바로 이어지는 논의에서 논자는 “인간은 세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되는 설명을 발견한다. 이것은 세계를 상기시켜 주는 신이 인간 내면에 있다는 설명과 다름없다. 인간은 이성의 원리에 따라 신을 안다. 이것은 신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의 등장은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세계시민과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는 전체적인 글의 구성과 논지에도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논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다섯째, 논자는 “도덕적 숭고함과 자급자족의 행복을 스스로 요청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존중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고귀한 사유를 가질 수 있고 세계 안에서 안전하게 된다.”거나,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 이것은 따라서 세계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대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논평자는 매우 황당함을 느낀다.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너무 쉽

1) 밑줄은 논평자가 편의상 추가한 것.

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이 전체 안에서 종속과 통합을 사유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동료(同類)와 연결되는 것을 안다면, 행복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든지, “우리는 실제로 무지(無知)와 두려움에 의해 세계와 분리되고, 동시에 세계와 자기에 고립되고 낯설게 된다.”, 혹은 “전쟁에선 개인의 상처받을 수 있음의 결과만이 고려된다. 이것은 끊임없는 불안의 감정을 유지하고 세계 내 존재를 방해하는 무질서한 상태이다. 전쟁은 사실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고려되기보다 사적이고 열정적이며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여겨져야 한다. 전쟁은 인간성의 부당한 분열에 연관되지 않고 불가피한 인간의 야망에 연관된다. 반면에, 가장 중요한 전쟁은 각자가 자기 자신에 반(反)해, 불안과 불행을 유발하는 것에 반(反)해 이르는 전쟁이다.”란 진단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일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지나치게 관념적이다. 행복도, 세계와의 분리와 고립도, 전쟁도 모두 인간 개개인의 주관과 사념에 달려있을 뿐이란 말인가? 정신 외적이고 물질적인 토대와 인간 간 내지 국가 간의 객관적 상호 관계를 홀대하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사유 논리는 논자가 정작 하려는 글의 주된 논의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논지를 해칠 뿐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논자의 입장을 듣고 싶다.



**기술산업시대의 생태학  
: 생물다양성의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목원대학교, 방현우



# 기술산업시대의 생태학

## : 생물다양성의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목원대학교, 방현우

### 1. 서론

‘생태학(ecology)’은 독일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처음 제안된 용어로, 생물 간 또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생물은 서로 그리고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생태학자들은 이러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해 상호작용과 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전,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 인간 활동의 영향 등을 연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과 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요컨대, 생태학의 연구 목적은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데 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특정 지역이나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생물종들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생물종의 수와 각종의 개체 수 분포를 포함한다.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의 복원력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외부 충격에도 생태계가 잘 대응할 수 있다.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은 같은 종 내에서 개체 간의 유전적 차이를 의미한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질병이나 스트레스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어 종의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계와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종,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산림, 사막, 해양, 습지 등 고유한 생물 군집과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포괄한다.

생물다양성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생태계는 농업, 임업, 어업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생물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식량과 물의 공급, 공기와 물의 정화, 병충해와 질병의 통제, 기후 조절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관광, 여가,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가치를 제공하고, 의약품과 생명공학 제품 개발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 복지에 필수적이다.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총액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는 전 세계 GDP의 1.5배가 넘는 연간 약 125~14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자원 소비로 인해 환경 부하가 가중되고, 자연 서식지 파괴와 오염 물질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과잉 착취, 질병 확산 등 생물다양성의

1) OECD, *Biodiversity finance and the economic and business case for action*, 2019, In <https://www.oecd.org/environment/resources/biodiversity/G7-report-Biodiversity-Finance-and-the-Economic-and-Business-Case-for-Action.pdf>.

직접적 주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생물다양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서식지 손실, 서식지 파편화 그리고 서식지 악화를 포함한 '서식지 파괴'로 알려져 있다.<sup>2)</sup>

기후변화 역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sup>3)</sup>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육상 생태계의 파괴로 인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빠른 온도 상승 속도로 인해 많은 생물종이 생존 범위를 벗어나 멸종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가입국 195 개국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 아래로 유지하되, 1.5°C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한 파리협정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23년 발간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은 빠르게 상승하여, 2040년 이전에 1.5°C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sup>4)</sup>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2023년 7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났다.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언급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중형저서동물(meiofauna)은 작다는 뜻의 그리스어 *meio*-에서 유래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망목크기 500  $\mu$ m 채를 통과하고, 38  $\mu$ m 체 위에 남는 저서동물을 총칭한다. 중형저서동물은 작은 크기와 퇴적물에서 추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sup>5)</sup> 환경오염 모니터링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형저서동물이 저질 내에서 미생물의 활성을 조절하며, 대형저서동물(macrofauna)의 먹이원이 되고, 짧은 생식기로 인해 환경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며, 퇴적물 1m<sup>2</sup> 당 10만~100만 개체의 높은 밀도로 서식할 뿐 아니라 종 다양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sup>6)</sup>

본 연구에서는 1) 인류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 중 하나인 북미 멕시코만 딥워터 호라이즌 유류 유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형저서동물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2)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중형저서동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본론

### 1)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DWH) 유류 유출 사고

딥워터 호라이즌(DWH) 폭발사고는 2010년 4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북미 멕시코만에서 벌어졌던 사상 최악의 환경 오염 사고 중 하나로, 영국 석유업체 BP (British Petroleum)의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여 약 5개월 동안 7억 7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이다.

2) Grooten, M. and Almond, R.E.A., "Living planet report-2018: aiming higher.", WWF international, 2018.

3) Habibullah, M.S. et al. "Impact of climate change on biodiversity loss: global evidenc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29, 1, 2022, pp.1073-1086.

4) Lee, H. et al., "IPCC, 2023: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H. Lee and J. Romero (eds.)]. IPCC, Geneva, Switzerland.", 2023, pp.1-34.

5) Higgins, R. and Thiel, H.,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meiofauna*. 1988 Washington, DC & Lond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488 p.

6) Coull, B. C., et al., "Nematode/copepod ratios for monitoring pollution: a rebuttal." Marine Pollution Bulletin, 12.11, 1981, pp. 378-381.

DWH 유류 유출은 87일 동안 490만 배럴 이상의 원유와 탄화수소 가스를 방출하였고, 정화 작업 후에도 320만 배럴이 환경에 잔류하였다.<sup>7)</sup> 방출된 탄화수소 중 최대 35%가 심해 플룸에 갇히거나 심해 퇴적물로 운반되어<sup>8)</sup>, 모든 시공간적 규모에 걸쳐 저서생물 군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DWH 유류 유출이 심해 저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형저서생물 중 저서성 요각류 Harpacticoid를 과(family) 수준으로 동정하여 분석하였다. 총 95개 조사정점에서 채집된 Harpacticoid 요각류 31과, 13,823 개체를 분석한 결과, 우점하는 과는 Ameiridae, Argostidae, Canthocamptidae, Cletodidae, Ectinosomatidae, Miraciidae, Tisbidae 그리고 Zosimeidae 순서 나타났다. 95개 조사정점을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 (zone 1)부터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 (zone 5)까지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Tisbidae와 Ameiridae는 오염이 비교적 심한 zone 1과 zone 2에서 우점하였고, 반대로 Zosimeidae, Cletodidae 그리고 Ectinosomatidae는 오염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염도 낮을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저서성 Harpacticoid의 과 다양성이 유류 오염사건에 이용될 수 있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민감한 지표임을 보여주었다.

## 2) 국내 중형저서동물의 연구동향 분석

환경오염 모니터링에 지표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형저서동물의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Google scholar, KISS, RISS, KCI, Dbpia 등에서 ‘중형저서생물’, ‘중형저서동물’, ‘저서동물’, ‘meiofauna’, ‘benthos’를 검색하여 연구 논문과 학회자료집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국문초록, 영문초록, 핵심어, 학술발표 초록을 추출하여 단어빈도 분석, 단어 연결강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1996년 이전에는 국내에서 중형저서생물 관련 연구논문 등은 출판되지 않았으나, 이후 2000년까지 19편, 2010년까지 약 100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60편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 주제별 논문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논문이 생태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종 분류, 환경독성 및 생리, 배양을 포함한 방법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McNutt, M.K., et al., “Review of flow rate estimates of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Proc. Natl. Acad. Sci. 109 (50), 2012, pp.20260–20267.

8) French-McCay, D.P., et al., “Oil fate and mass balance for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Mar. Pollut. Bull. 171, 2021, 112681.

9) Baguley, J.G., et al., “Community response of deep-sea soft-sediment metazoan meiofauna to the Deepwater horizon blowout and oil spill.”, Mar. Ecol. Prog. Ser. 528, 2015, pp.127–140.

## ■ 참고문헌

- Baguley, J.G., Montagna, P.A., Cooksey, C., Hyland, J.L., Bang, H.W., Morrison, C., Kamikawa, A., Bennetts, P., Saiyo, G., Parsons, E. and Herdener, M. "Community response of deep-sea soft-sediment metazoan meiofauna to the Deepwater horizon blowout and oil spill.",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528, 2015, pp.127–140.
- Coull, B.C., Hicks, G.R.F. and Wells, J.B.J. "Nematode/copepod ratios for monitoring pollution: a rebuttal." *Marine Pollution Bulletin*, 12, 1981, pp.378–381.
- French-McCay, D.P., Jayko, K., Li, Z., Spaulding, M.L., Crowley, D., Mendelsohn, D., Horn, M., Isaji, T., Kim, Y.H., Fontenault, J. and Rowe, J.J. "Oil fate and mass balance for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Marine Pollution Bulletin*, 171, 2021, p.112681.
- Grooten, M. and Almond, R.E.A., "Living planet report-2018: aiming higher.", WWF international, 2018.
- Habibullah, M.S., Din, B.H., Tan, S.H. and Zahid, H. "Impact of climate change on biodiversity loss: global evidenc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29, 1, 2022, pp.1073–1086.
- Higgins, R. and Thiel, H.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meiofauna*. Washington, DC & Lond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88.
- Lee, H., Calvin, K., Dasgupta, D., Krinner, G., Mukherji, A., Thorne, P., Trisos, C., Romero, J., Aldunce, P., Barret, K. and Blanco, G. *IPCC, 2023: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H. Lee and J. Romero (eds.)]*. IPCC, Geneva, Switzerland. 2023.
- McNutt, M.K., Camilli, R., Crone, T.J., Guthrie, G.D., Hsieh, P.A., Ryerson, T.B., Savas, O. and Shaffer, F. "Review of flow rate estimates of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 (50), 2012, pp.20260–20267.
- OECD. *Biodiversity finance and the economic and business case for action*, <https://www.oecd.org/environment/resources/biodiversity/G7-report-Biodiversity-Finance-and-the-Economic-and-Business-Case-for-Action.pdf>. 2019.

## 「기술산업시대의 생태학 : 생물다양성의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논평문

목원대학교, 조용림

이 연구는 생물 간 또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생태학, 생물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물 다양성에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이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 -생물자원의 제공, 관광, 여가, 교육 등- 산업과 제품 개발의 원천이 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 복지에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인구 증가와 자원 소비로 인한 환경 부하, 자연 파괴와 오염 물질 배출 등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 시대가 도래했으며, 환경변화와 오염 물질로 인해 중형저서동물(meiofauna), 대형저서동물(macrofauna)의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 유출이 생태계에 미치는 연구를 살피고, 국내 중형저서동물의 연구 동향을 텍스트마이닝의 기법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론자가 생태학에 비전문가여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를 돕고자 두 가지를 질문함으로써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첫째, 제목에서 “기술산업시대의 생태학”을 논하고 있다. 현대의 생태학을 정의내리려는 연구자의 의도를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통생태학”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기술산업시대에서 생태학의 역할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생물다양성 상실의 시대에 교육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책무? 의무?)은 무엇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물 대멸종은 이전의 생물 대멸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토론자가 우매한 질문으로 연구자에게 누를 범하고 있다. 많은 양해 바라며,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잠재력의 재발견**  
**: 세종 이도의 지도자다움은**  
**어떻게 발현되었나?**

세종리더십연구소, 박현모



## 잠재력의 재발견

### : 세종 이도의 지도자다움은 어떻게 발현되었나?

세종리더십연구소, 박현모

“아주 어렸을 때의 습관 형성이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온다.

아니, 모든 차이가 거기서 비롯된다.”

\_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 1. 문제제기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세종 이도(李祹, 1397-1450)의 인성(人性) 혹은 사람의 품성에 대한 생각을 살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종 이도의 인성 중에서 특히 지도자다움의 형성과 발현에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인 현대 사회의 시민성 함양과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본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세종대왕이라는 말 대신 ‘세종 이도’ 혹은 ‘세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려고 한다. 세종 이도라는 말이 세종대왕이라는 말보다 그의 인성 형성과정과 지도자다움이 발현되는 과정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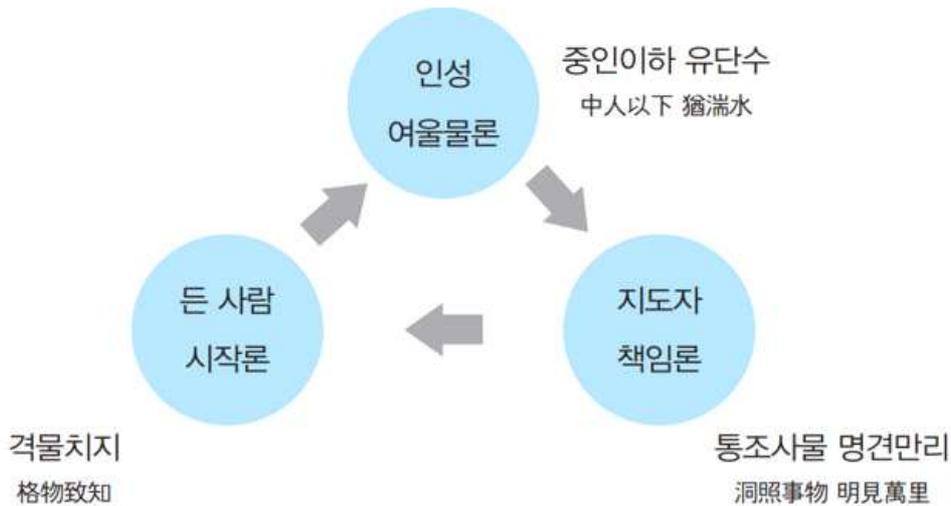
둘째, 세종 이도의 치적을 소개하면서 칭송하는 일은 지양하려고 한다. 그동안의 세종에 대한 연구와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결과(what)에 치중되어 있다. 측우기, 자격루, 북방영토, 한글창제 등이 얼마나 뛰어난 과학기기이며 훌륭한 업적인가를 알리는데 집중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세종이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고 한글창제 할 때 어떻게(how) 반대파를 설득했는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역시 세종의 인성 형성 과정(process)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셋째, 세종의 업적을 열거하는 대신 “세종이라면?”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을 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미래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세종대왕” 내지 “성군 세종”이라는 명사로서 세종이 아니고 대명사로서 세종, 즉 ‘그가 또는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헤쳐나갔다’라고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세종’이라는 명사를 괄호치고 ‘그’ 혹은 ‘그녀’가 한 말과 일을 기술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나 공감하고 따라오고 싶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청소년만이 아니라 외국 청소년들도 그런 인물을 따라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세종 인성과 지도자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 글은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세종 이도의 인성관

세종은 사람의 품성에 대해 어떻게 보았을까? 세종문헌, 즉 세종을 만든 문헌과 세종시대에 만든 문헌에 나타난 ‘본성’ 또는 ‘천성’에 대해 언급한 몇몇 사례를 통해 그의 인성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 여율물론이다. 세종에 따르면 사람의 품성은 ‘여율의 물(湍水)’과 같다. “동쪽을 터뜨려 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을 터뜨려 놓으면 서쪽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사람의 품성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非定性命] 그 터놓은 방향에 따라서 착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가변적이라는 게 세종의 인성관이였다.

따라서 인성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이다. ‘사람의 마음은 본디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부모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대로 나쁜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나쁜 인성을 갖게 된다고 세종과 그 시대 사람들은 보았다. “진(秦)나라 2세 호해(胡亥)<sup>10)</sup>가 본성이 나빠서 그리된 게 아니다. 조고(趙高)<sup>11)</sup>에게 배우고 익힌 것이” 그릇되었고, 나쁜 사례를 자주 듣고 자라서 것처럼 잔인 포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랄 때 듣고 보는 바가 그 사람의 인성을 좌우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실로 엄청나다. 요즘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접하는 이야기는 온통 ‘호해 만드는 것’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우리들의 기호(嗜好)나 기뻐하는 것[所樂]까지도 어떤 경험을 처음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았다. 몸에 해로운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먼저 체험하면 그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몸이 바뀌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가려서’ 하고 ‘먼저 익히는’ 경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왜 청소년과 청년시절에 세종시대 이야기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10) 진나라의 제2대 황제로 진시황의 막내아들이다.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황제가 된 다음에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키고, 대규모 징병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민심을 잃었고, 반란군에 쫓겨 자살했다

11) 진나라 시황제의 환관으로, 승상 이사와 짜고 황제의 유서를 거짓으로 꾸며 호해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둘째, 지도자 인성책임론이다. 세종은 사람을 지도자[聖人]와 보통사람[中人]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 즉 지도자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지도자는 “사물을 통찰할 수 있고, 아주 멀리 내다 볼 수 있는[洞照事物 明見萬里]” 사람으로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 “의심으로 꼭 차서 일마다 머뭇거리지는” 중인 이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한다(세종실록 15/3/17).

세종이 이처럼 정치교화를 강조한 것은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재위 초반 ‘탐오(貪汚)죄’로 탄핵을 받은 강원도 관찰사 유사눌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스스로 새로워지는 이치가 있다[人有 自新之理]”(세종실록 4/2/25)면서 그를 보호한 것이 그 예이다.

세종은 사람의 성품이 타고나면서부터 악하거나 선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먼저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그의 인성관은 고자(告者)의 ‘선악부정설(善惡否定說)’과 비슷함(〈맹자〉 고자 上). 하지만 그는 ‘동쪽과 서쪽의 구분은 없으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에 따라, 사람이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自新之理]를 믿었다. 그 결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선심(善心)을 발현시키는[感發其同然之善心] 교육을 매우 중시한 점에서(세종실록 14/6/9) 고자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세종은 성인, 즉 멀리 보고 정확히 알고 있는 지도자들의 교화 책임을 강조했다. 백성들이 성인의 교화를 받으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넘어지거나(세종실록 15/윤8/19, 16/05/15)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어(未免私情)(세종실록 14/3/13) 실수를 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종의 생각은 곧 인성교육 정책으로 나타났는데 〈삼강행실〉의 편찬과 보급이라는 출판이 그것이다.

셋째, 든사람 시작론이다. 세종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든 사람’이 되는 과정, 즉 배움의 과정을 매우 중시했다. 세종은 그가 탐독한 성리학 서적, 예컨대 〈대학〉의 영향 때문인지, 인격을 갖추는 여러 단계 중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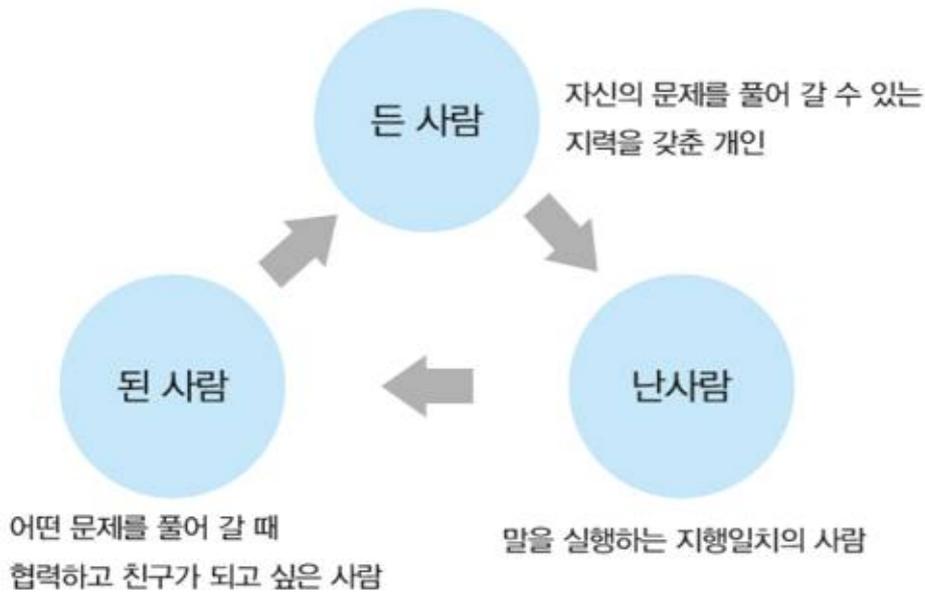
〈대학〉에서는 먼저 제대로 된 지식을 정확히 깨우칠 때, ‘성의정심(誠意正心)’이라는 바른 인성을 갖춘 인격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야 ‘수신제가(修身齊家)’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와 같은 이른바 ‘출세(出世)’의 과정, 즉 ‘난사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종이 어려서부터 〈구소수간〉과 같은 고전, 즉 구양수와 소식이 편지를 통해 주고 받은 활달하고 자유로운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는 인품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그러한 ‘든 사람’ 이후에 ‘된 사람’의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대학연의〉나 〈치평요람〉과 같은 역사 속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효과적인 국가경영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역시 ‘든사람’이 된 연후에 ‘난사람’이 된다는 세종의 철학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덕성’이나 ‘잘남(arete)’ 이전에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깨닫는(sophia) 일이 중요하다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양승태 2006, 〈앎과 잘남〉 23-26쪽).

### 3. 세종의 인성

세종 자신의 인성은 어땠을까?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일 때 그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 점에서 세종은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세종의 인성을 분석해 보면, 세종은 스스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든사람) 좋은 사람으로서(된사람) 뛰어난 성과를 내어 책임지는 행위자(난사람)이었다.



여기서 든사람이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력을 갖춘 개인이라는 뜻이다. 세종은 스스로 배우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적 역량을 지닌 존재였다.

다음으로 세종은 된사람이었다. 된사람이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협력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환영받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난사람은 단지 말로 그치지 않고 말을 실행하는 지행일치의 사람이며 성과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다.

세종은 필요한 지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었으며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낸 리더였다. 이를 <세종실록>에서 전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배우기를 좋아하여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출중한 ‘든 사람’이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신하들이 중국에 보내는 부고에 적은 말을 보면 그는 “천품의 자질이 영예(英睿)하며 배우기를 즐겨하고 게으르지 않았다(天資英睿 好學不倦)고 한다(세종실록 32/2/22).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온 대궐이 뽕뽕 얼어붙은 듯한 추운 밤에도 밤을 새워 책을 읽곤 했다고 한다. 병이 날까 염려한 태종이 저녁에는 책을 읽지 못하게 금지하기도 했으나, 막무가내로 밥을 먹을 때도 좌우에 책을 펴놓고 읽었다(태종실록 05/12/23; 18/06/03). 그 덕분에 일찍이 경서는 물론이고 역사책과 외교문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었다. 어린 세종이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의외로 뛰어난 소견을”(〈세종실록〉 총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넓고도 깊이 있는 책 읽기의 덕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그는 ‘된 사람’이었다. 태종은 재위 말년에 충녕(세종)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그의 성품이 “마음이 너그럽고 크고 씩씩하고 의젓할(莊重) 뿐더러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孝悌] 겸손하여 주위 사람들을 공경하는[謙恭][寬弘莊重 孝悌謙恭]” 사람이라고 말했다(태종실록

18/6/17). 특히 세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라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정이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鰥寡孤獨]에게 끼칠 영향을 맨 먼저 고려하였다.

셋째, 세종은 그의 재위기간에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가장 성공적인 군주로 평가 받은 ‘난 사람’이었다. 그는 재위 초반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이 임금 때문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심히 어렵다. 내가 만약 임금이 된다면 반드시 풍년이 들것이다”(《세종실록》 05/03/05)라는 불신을 받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가 사망했을 때 ‘생생지락하는 나라를 만든 임금’으로 평가 받았다. “30여 년 동안 백성들이 전쟁을 보지 못하고 편히 살면서 생업을 즐겼다[三十餘年之間 民不見兵 按堵樂業]”(세종실록 32/2/22)는 평가가 그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그는 후대의 울곡 이이로부터 “사민부서(斯民富庶)”를 연 군주, 즉 백성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고[民富] 인구가 많아지게[民庶] 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우리나라 만년 운의 기틀을 다져놓았다”(이이, <울곡전서(栗谷全書)> 성학집요)는 극찬을 받았다.

이처럼 세종은 개인적인 학문 역량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 높은 성취를 거둔 지도자였다.

어린 시절 세종(충녕)의 모습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다. 어려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소년 세종이 모습이 그것이다.

1415년(태종15년) 11월 6일 실록을 보면, “결식하는 사람이 미처 진휼을 받지 못하여 충녕 대군에게 찾아갔다”고 한다. 결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그날 구휼 식량을 얻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왕이나 세자 양녕)이 아니고 대군 중 한 명인 충녕대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날 식량을 얻지 못하면 가족이 모두 굶주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진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충녕대군을 찾아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보고를 받은 태종의 반응이다. 태종은 “서울과 외방의 굶주린 백성을 이미 유사(有司)로 하여금 자세히 물어서 진제(賑濟)하게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유사가 빠짐없이 물어서 고루 주지 못하여 스스로 대군에게 말하게 하였는가?”라고 하여, 담당자를 추궁했다. 이어서 그는 왕 자신이 “굶주리고 추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충녕이 보고 자라서”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바로 내게 와서 도와주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태종실록 15/11/6).

다시 말해서 태종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어린 충녕대군이 보고 자라서 어진 마음을 가졌고, 남을 도와주려는 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결식자가 충녕대군을 찾아갔다는 게 태종의 말이다. 어려서의 보고 들은 경험이 사람의 인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 4. 세종 이도의 지도자다움 발현과정

세종 이도의 지도자다움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 어떻게 발견되고 펼쳐졌나? 그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세종 이도가 결코 탄탄대로를 밝은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모 형제에게 잘하며, 주위 사람들을 공경하는 인품을 갖는 과정이 그저 순조롭지는 않았다.

소년 시절의 세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가 태어난 동네이다. 세종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세종실록》을 보면 “태조 6년 4월 임진일에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나

셨다[太生於 漢陽 俊秀坊 潛邸]”라고 나온다. 세종이 서울 경복궁 서편의 준수방이라는 행정구역, 지금의 통의동 근처에서 태조 6년(1397년)에 태어났다.

어린 세종의 주 무대는 인왕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옥류천(玉流川)이나 인왕산 매바위, 또는 그 언저리인 지금의 배화여고 교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북개도로가 된, 제법 큰 백운동 계곡과 거기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이는 넷째 큰 아버지 이방번의 집과 그 집의 사촌형(이맹성 등)과도 어울려 놀았을 것이다. 인왕산 백운동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방번 집 옆 자수궁 교 아래로 지나가는 모습을 어린 세종의 형제들은 보며 자랐다. 백운동천을 경계로 서쪽으로 1,300여 평 되는 넓은 정안군 이방원의 집에는 4남 4녀의 형제자매들이 와글와글 모여 살았다. 즉 세 살 위의 큰 형 양녕대군, 한 살 위의 둘째 형 효령대군, 8년 연하의 동생 성녕대군, 그리고 큰 누나 정순공주(1385년 생으로 세종보다 12세 연상), 여동생 정선공주(1404년 생으로 세종보다 6년 연하) 등이 어린 세종의 성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린 시절 백운동천 동쪽으로 250미터 거리의 경복궁에서 들려오는 조정 이야기는 알게 모르게 어린 세종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었던 듯하다. 태조 6년(1397년)의 기록부터 태종14년(1401년)의 기록에 나타난 세종 주변의 일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세종이 두 살 되던 1398년 정도전 등이 정안군 이방원에 의해 척살되었고(1차 왕자의 난), 2년 뒤인 1400년에는 세종의 넷째 큰 아버지 이방간이 궁중쿠데타를 기도하다 숙청되었다(2차 왕자의 난). 정도전 척살사건이야 나이 어린 세종에게 잘 기억되지 못했겠지만, 이방간 숙청사건은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경복궁 서편, 지금의 통의동 일대에서 위 아랫집으로 함께 자라며 뛰놀던 사촌 형제들이 하루아침에 원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세종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아마도 열 살 때 들은 외삼촌 민무구의 말이었을 것이다. 민무구는 1406년 태종에게 또 다른 왕자의 난을 막으려면 세자 양녕을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자 본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부추기고 피는 자가 있을 것이니, 나무의 곁가지를 쳐내듯 모두 없애버려야(剪滅)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다섯 살 때부터 “우 두머리를 닦는 마음[爭長之心]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어린 세종에게 이 말은 가슴 철렁한 것이었다. 자칫 나무의 곁가지처럼 순식간에 잘려나갈 수도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세종으로 하여금 재위 기간에 ‘정치적 이유로 사형 당하는 일이 한 건도 없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일련의 ‘왕자의 난’은 세종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적장자에게 왕위가 계승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제간의 왕권다툼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이것은 말년에 아들 문종의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에게 과감히 세자 교체를 해주지 못하는 계기로 작용한 듯하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다음 계속된 부모의 불화였다. 어머니인 원경왕후는 태종 이방원이 계속해서 후궁을 들이고, 자신의 친정 동생들까지 숙청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곤 했다. <태종실록>을 보면 당시 조정에서는 폐비, 즉 이혼까지 논의되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들은 세종의 형제들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어린 시절 충녕의 성정 역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충녕은 우선 일러바치기 잘하는 왕자였다. 《태종실록》에 외삼촌 민무회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들은 충녕은 즉시 부왕 태종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 일로 외갓집이 풍비박산 되고 말았다(태종실록 15/04/09). 충녕의 이런 모습에 실망한 세자 양녕은 동생을 꺼렸으며, 자신의 애첩인 어리도 동생 충녕의 고자질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태종실록 18/05/11).

충녕은 또한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었다. 태종 재위 16년째인 1416년 한 여름에 태종은 상왕인 정종을 모시고 경회루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이때 신하들은 당시 지식경쟁의 상징이었던 시구 잇기[聯句]를 경쟁적으로 벌였다. 이때 충녕은 그 어렵다는 《서경》의 한 구절을 들어 한껏 학문을 뽐냈다. 물론 그 자리엔 세자 양녕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종은 양녕을 돌아보면서 “왜 너는 학문이 이만 못하냐?”(태종실록 16/07/18)고 꾸짖었다. 이때 충녕의 나이 이미 스무 살이었고, 또 누구보다 영리했던 그가 자신의 이런 행동이 형을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이라 몰랐을 리가 없었다.

그러면, 이처럼 불안전하고 결함 많은 인간이었던 세종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좌절의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쳐나갈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외삼촌들의 위협과 형의 견제, 그리고 부모 불화를 참고 이겨내는 품성(character)이 그로 하여금 역경을 극복하게 하였다.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어릴 적에 신동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큰 성과를 거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애쓰며, 특히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새로운 지식과 기량, 그리고 다른 관점을 찾아서 자기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따분하고 반복적인 긴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게 품성이다. 그에 따르면 품성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주도력, 친화력, 자제력, 결의 등 학습 가능한 행동유형’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탁월함을 향해 진전하게 만든다(애덤 그랜트 2024, <숨은 잠재력> 22쪽).

세종은 이미 일곱 살 때 양녕이 왕세자에 책봉되면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야망을 꺾어야 했다. 이후 형 양녕과 외삼촌 등의 견제와 협박 속에서 자라야 했다. 열 살 때인 1407년(태종7년) 9월 외삼촌 민무구 등이 세자 이외의 왕자들을 모두 제거해버려야[剪除] 한다고 협박했었다. 자신의 ‘기델 언덕’이었던 세 살 위의 누나 경안공주가 사망하는가 하면(18세), 막내 동생이 홍역으로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21세). 한마디로 7세부터 21세에 즉위하기까지 15년간 세종이도가 맞닥뜨려야 했던 도전과 시련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다.

이 도전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한 힘이 주도력, 친화력, 자제력 등이었다. 예컨대 세종 이도가 16세 되는 1413년(태종13년) 12월에 태종은 이도에게 “너는 따로 할 일이 없으니 편안히 즐기나[安享而已] 하여라”면서 서화(書畵)·화석(花石)·금슬(琴瑟) 등을 갖춰주었다. 이 때문에 이도는 예기(藝技) 방면에도 탁월했고, 거문고를 양녕에게 가르쳐주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세종 이도는 경사(經史) 공부는 물론이고, 예능까지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악기를 매개로 형 양녕과 매우 화목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높은 친화력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이도가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게 된 데는 품성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활발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성과 기품이 비슷한 세 살 위 누나(경안공주)와 대화를 자주 했다. 누나는 동생 이도의 덕성과 기량을 칭찬하곤 했는데, 그 점이 그로 하여금 ‘기델 언덕’이 되었다. 그는 또한 아버지 태종이 마련하는 학술적 모임 자리나, 여행 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하곤 했다. 아버지의 칭찬이 그를 더욱 성장하게 했다.

러시아의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에 따르면, 어린이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행위(사회적 말하기)는 자기 존재감을 높이고 나아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비고츠키 2011, <생각과 말> 108-109쪽). 세종 이도의 경우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독서하고 홀로 숙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경청형 대화’에 익숙했는데, 뛰어난 두 스승, 즉 고전을 엄선해서 가르쳐준 스승 이수(李隨)와 그와 더불어 종일토록 강론한 생활동반형 스승 김토(金土)를 통해 배우고 또 토론하는 지도자다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어린 시절 세종 이도는 도전과 좌절을 많이 겪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에게 독서와 토론은 살벌한 정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부왕 태종을 정점으로 하여 회오리치는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탈출하려는 큰 형 양녕에게 '여자와 사냥'이 필요했듯이, 어린 이도에게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책이었다. 부왕 태종은 종종 이도를 가리켜 호학불권(好學不倦), 즉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한번도 싫증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세종 이도의 품성을 잘 보여준다. 국왕에게 꼭 필요한 여러 요소를 배워야 한다면, 그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다(지도자다움의 필요조건으로서 품성).

지도자다움은 음악이나 스포츠, 혹은 학문 분야와 달리, 몇 가지 뛰어난 기량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인재들의 마음을 얻는 게 지도자의 제일 조건이다. 세종 이도의 즉위 제일성이 '내가 잘 모른다'였던 사실에서 보듯이, 그는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양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낮춤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 병조의 당상관과 함께 의논해서 벼슬을 제수하려고 한다"는(세종실록 즉위년/8/12) 즉위 첫마디에서 보듯이, 그는 빼어난 인재들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는데 탁월했다. 인재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 위임하기를 잘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말하자면 세종에게 지도자다움의 두 번째 요소는 경청과 위임이었다(지도자다움의 충분조건으로서 경청과 인재 위임).

## 5. 마무리

이 글에서 발표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지도자의 잠재력은 기량이 아니라 태도에서 형성하고 또 발현된다는 점이다. 세종 이도의 사례를 통해 그 점을 규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세종 인성교육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인성교육은 그동안 말 잘 듣는 '착한 사람' 만드는 교육이라거나 질서 잘 지키는 '민주시민' 되는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세종실록>을 통해서 볼 때, 지도자 내지 인성 갖춘 리더란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나 질서 잘 지키는 시민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현실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사물을 통찰하여 아주 멀리 내다 볼 수 있는[洞照事物 明見萬里]" 사람이 그것이다. 이는 지도자란 '통조사물(洞照事物)', 즉 당면한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석적 사고'(현미경)와 '명견만리(明見萬里)', 즉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닥쳐올 일까지 헤아려서 대안을 마련하는 '전략적 사고'(망원경)를 가진 사람임을 뜻한다.

우리의 차세대들이 세종인성교육을 통해 이러한 리더십을 갖추 수 있다고 본다. 유대인들은 <바이블>과 <탈무드>를 세대 간에 전승하며 인생의 지혜를 전수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도 <세종실록> 속 리더십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다양한 상황과 경우의 수를 간접 체험하고, 사태를 읽고, 다양한 옵션과 결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1차 자료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치평요람(治平要覽)》 《서경(書經)》 《역경(易經)》 《맹자(孟子)》 《대학연의(大學衍義)》 《대학공의(大學公義)》 (정약용) 《동문선(東文選)》 (서거정)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이공익) 「크리톤(Crito)」 (플라톤) 「니코마코스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 ▣ 2차 자료

- 강진령 저, 우종욱 편, 「인성교육의 본질과 기본방법」,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 : 창의력교육과 인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8.
- 남문현, 『전통 속의 첨단 공학기술』, 서울: 김영사, 2002.
- 박현모, 『세종처럼: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 서울: 미다스북스, 2008.
- 박현모, 『세종학개론』, 서울: 문우사, 2019.
- 박현모, 『창조경제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 박현모, 『치평요람속 한국이야기 I』, 여주: 한국형리더십개발원, 2015.
- 비고츠키 저, 배희철·김용호 번역, 『생각과 말』, 서울: 살림터, 2011.
- 손인수, 『세종시대의 교육문화연구』, 서울: 문음사, 1999.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선현위인어록』,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 양승태, 『앓과 잘남』, 서울: 책세상, 2006.
- 애덤 그랜트 저, 홍지수 번역, 『히든 포텐셜』, 서울: 한국경제신문, 2024.
- 우종욱, 「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 : 창의력교육과 인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10.
- 이관구, 「발간의 말씀-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효자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 이토 준타로(伊東俊太郎), 『과학사기술사사전(科學史技術史事典)』, 동경: 홍문당, 1983.
- 정범모, 「서문」, 우종욱 편,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 : 창의력교육과 인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10.
-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글항아리, 2011.
- 조남욱, 「세종대왕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제6집, 유교학회, 1992.
- 진교훈 외,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7.
- 코비. S, 김경섭 역,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서울: 김영사, 2003.
- 토크빌. A, 임효선 역, 『미국의 민주주의』, 서울: 한길사, 1997.
- 한국교육학회,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1998.



## 「잠재력의 재발견 : 세종 이도의 지도자다움은 어떻게 발현되었나?」에 대한 논평문

충남대학교, 서원혁

본 연구논문을 읽어 볼 기회를 제공한 박현모 세종리더십연구소장님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논문은 세종 이도의 지도자다움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글의 목적은 첫째 세종 이도(李祹, 1397-1450)의 인성(人性) 혹은 사람의 품성에 대한 생각을 살피는 것이고 둘째 세종 이도의 인성 중에서 특히 지도자다움의 형성과 발현 과정을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세종 이도의 인성관에 대해서는 첫째, 인성은 **울물론과 같다**고 밝힌다. 이도는 사람의 품성에 대해 ‘여울의 물(湍水)’과 같아서 “동쪽을 터뜨려 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을 터뜨려 놓으면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보았다. 사람의 품성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非定性命] 그 터놓은 방향에 따라서 착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가변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종의 인성관을 말한다. 둘째로는 **지도자 인성책임론**이다. 세종은 사람을 지도자[聖人]와 보통사람[中人]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 즉 지도자의 책무를 강조했다. 셋째, **든사람 시작론**이다. 세종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든 사람’이 되는 과정, 즉 배움의 과정을 매우 중시했다. 세종은 탐독한 성리학 서적, 예컨대 <대학>의 영향 때문인지, 인격을 갖추는 여러 단계 중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세종의 인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배우기를 좋아하여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출중한 ‘든 사람’이었다. 둘째, 그는 ‘된 사람’이었다. 태종은 재위 말년에 충녕(세종)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그의 성품이 “마음이 너그럽고 크고 씩씩하고 의젓할[莊重] 뿐더러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孝悌] 겸손하여 주위 사람들을 공경하는[謙恭][寬弘 莊重 孝悌謙恭]”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라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정이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鰥寡孤獨]에게 끼칠 영향을 맨 먼저 고려하였다. 셋째, 세종은 그의 재위기간에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가장 성공적인 군주로 평가 받은 ‘난 사람’이었다. 율곡 이이도 그의 업적에 대해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우리나라 만년 운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하며 극찬기도 했다.

이도의 지도자다움 발현과정은 성장과정에서부터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형인 양녕이 세자가 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서의 자신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면, 이처럼 불완전하고 결함 많은 인간이었던 세종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좌절의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외삼촌들의 위협과 형의 견제, 그리고 부모 불화를 참고 이겨내는 품성 기량(character skills)이 그로 하여금 역경을 극복하게 하였다.<sup>1)</sup>

1)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품성기량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주도력, 친화력, 자제력, 결의 등 학습 가능한 행동유형’이다

이러한 풍성기량을 길러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그는 책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혀 나갔고, 형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갔다. 다음으로, 그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세종은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왕위에 오르기 전에 두루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기에 한 가지 충분조건을 살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활발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세종인성교육의 효과, 즉 세종학을 통해서 배우는 인성교육의 차별점은 인성교육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그동안 말 잘 듣는 ‘착한 사람’ 만드는 교육이라거나 질서 잘 지키는 ‘민주시민’ 되는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세종실록>을 통해서 볼 때, 지도자 내지 인성 갖춘 리더란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나 질서 잘 지키는 시민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현실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우리의 차세대들이 세종인성교육을 통해 이러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세종실록> 속 리더십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다양한 상황과 경우의 수를 간접 체험하고, 사태를 읽고, 다양한 옵션과 결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통해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으로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성 여울물론이다. 세종에 따르면 사람의 품성은 ‘여울의 물(湍水)’과 같다. “동쪽을 터뜨려 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을 터뜨려 놓으면 서쪽으로 흐른다”라는 것이다. 사람의 품성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非定性命] 그 터놓은 방향에 따라서 착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가변적이라는 게 세종의 인성관이었다. -각주 표기 필요해 보임. 92쪽 5번째 줄...

두 번째, 세종 이도의 인성관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이후에 학습된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보여 집니다. 논평자는 타고난 품성도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타고난 품성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논평자는 타고난 품성이 더 크기에 거기에 더해지는 것들이 잘 품어져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책을 통해 익히고 백성을 만나 어려움을 보고 그들과 고통,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자세를 익혔으며 마지막으로 지도자다움의 자질로 활발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녔다고 밝히면서 경청형 대화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경청형 대화의 구체적 사례나 모습이 있으면 소개해 주길 바랍니다.

# MEMO

# MEMO

# MEMO

# MEMO